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3월 9일)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진정한 '힙한 불교' 연등회서 만나볼까

연등회보존위, 4월 11일 연등회 일정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계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연등회에서 MZ세대와 적극 소통을 예고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와 나는절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여준 불교문화 열풍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연등회'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연등회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약 30만명의 인원이 동참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봤다.

연등행사의 시작은 오는 4월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이 알린다. 올해

4월 17일 봉축점등식 시작으로
종로 일원서 전통등전시회 개최
제등행렬 2000여 동국대생 참여
군승, 군종병 호국즁 제작 동참
전통문화마당에 MZ체험부스 신설
돌아온 '뉴진 스님'의 EDM난장도

봉축 점등탑은 '황룡사 9층 목탑등'으로 단청의 선명하고 화려함과 전통 채색의 부드럽고 따뜻함이 한지와 어우러져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했다. '황룡사 9층 목탑등'은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을 밝힌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자장 율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신라 선덕여왕에게 건의해 조성한 황룡사 9층 목탑처럼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세상을 환히 밝힐 예정"이라며 "세종대로와 광화문광장, 종로거리 등에도 가로연등이 설치돼 서울 시내를 환하게 밝혀 봉축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월 11일 열리는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대중과 함께 어울리는 연희누리와 행렬등경연대회 시상식 그리고 연등법회로 동국대에서 진행된다. 40여 개 단체의 어린이율동단, 청소년율동단, 청년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이 신나는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연등회의 메인 행사인 연등행렬에는 각 참가단체마다 개성과 정성으로 만든 10만여 개의 행렬등과 150여 개의 장엄등이 오후 7시부터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종각을 거쳐 조계사까지 행렬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재학생 2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전통등 제작 강습과 지원들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들과 군종병들이 호국의 의지를 담아 등을 들고 참여할 예정이며 지난해에 이어 확대된 시민문화체험단은 종묘공원 앞에서 행렬등을 미리 만들고, 직접 만든 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한다. 연등회 홍보대사인 23개국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프렌즈도 관람객 외국인과 함께 행렬에 참여한다.

5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마당에서도 명상마당과 청년MZ마당을 신설해 MZ세대와 소통에 나선다. 청년MZ마당은 △압화체험 △전통놀이체험 △솜사탕·팝콘 무료보시 △단청문양 파우치 채색 △합장주 만들기 △금니사불체험 등 문화부스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인기 프로그램도 섭외하고 있다"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마당을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등행렬 참가단체 연희단이 중심이 돼 인사동과 종로 일대에 다시 한 번 연등행렬이 펼쳐지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놀이도 MZ세대라면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다. 5월 12일 저녁 7시 공평사거리에서 이뤄지는 연등놀이에서는 연희단 공연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진행된다. 특히 1년 만에 연등회를 다시 찾은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이 연등회 노래로 구성된 EDM난장을 펼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서울 종로 일원의 밤거리를 장엄할 전통등전시회는 전시 장소를 청계천에서 열린송현녹지광장, 광화문광장까지 확대했다. 청계천은 4월 24일, 열린송현녹지광장은 5월 2일, 광화문광장은 5월 9일에 개막한다.



尹 대통령 "사회 위해 노력한 불교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을 방문해 국민행복을 기원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월 7일 서울 진관사를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단 주요 소임자스님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은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하고 대웅전을 참배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오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관사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4월 5일 천태종 대표 사찰인 부산 삼광사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천태종 삼광사의 애국불교를 잊지 않고 받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진우 스님과 윤 대통령이 진관사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하는 모습. 글=윤호섭 기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조계종 원로회의, '조직개편' 종헌개정안 인준

4월 8일 제76차 회의서
새 원로의원 3인 선출도

조계종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종헌개정안이 최종 절차인 원로회의에서 인준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대종사)는 4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76차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회의에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18명의 원로의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원로회의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헌개정안 인준 이후 중앙종회 임시회서 통과된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동훈·오철·도서 스님(직할) △종일·성법 스님(용주사) △성대 스님(동화사) △돈증 스님(은해사) △도현 스님(해인사) △덕운 스님(쌍계사) △수불 스님(범어사) △원행 스님(금산사) △원진·일수·정연 스님(백양사) △종국·명섭·종열·진만·종고·종걸 스님(화엄사) △화범 스님(봉선사) 등 21명이다.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 대상자는 △일수·혜윤·본각·혜원·상덕 스님(직할) △정엽 스님(월정사) △상덕 스님(직지사) △혜강 스님(해인사) △경희 스님(통도사) △능인 스님(봉선사) 등 10명이다.

이 밖에 새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은해사 돈명 스님과 불국사 종우 스님, 화엄사 종열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돈명 스님은 196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조사국장을 비롯해 흥국사 주지,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과 은해사 회주를 맡고 있다.

종우 스님은 1980년 불국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주지, 선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포항 오어사 주지를 맡고 있다.

종열 스님은 1965년 내장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0대, 제13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호법부장, 호계원 초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직능대표선출위원을 맡고 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 종단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정이 필요하다. 총무원은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제대로 하고, 각 교구는 교구본사주지를 위시해 잘해야 한다"며 "조직 속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원로들도 굳건히 중심이 돼 종단이 힘을 받아 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집행부는 원로 대종사님들의 수승한 덕화와 자애로운 지도에 힘입어 종단의 안정과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관심과 지도를 내려주시면 종단의 지남으로 삼아 늘 수행 정진하고 불교중흥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회의가 끝난 뒤 최근 강진 피해를 입은 대만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아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주년 기념법회

천일기도 입재 1년(4.28)을 맞이하여 다라니기도와 기념법회를
갖습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기도동참으로
무량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68(2024)년 5월 4일(토)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
● 식 순 : ㅇ다라니 기도 • 발원문 • 정근축원
ㅇ기념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경과보고
– 인사말
– 법문 : 종천스님(불국사 주지)
– 축사(내외빈)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기도접수

천 일 기 도 : 2023. 4. 28(금) ~ 2026. 1. 21(수)
기 도 법 사 : 환풍스님 • 여진스님 • 선우스님
기 도 신 청 : 전국 사찰 종무소(수시접수) 또는 아름다운 동행
기도동참비 : 100일 10만원 / 1년 30만원 / 1000일 100만원 (선택)
기 도 접 수 : <기도접수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02-6273-0108 (아름다운 동행)
팩스 02-737-9195 (아름다운 동행)



열암곡 순례 정보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7층 문의 : 02-737-0862 / 010-9454-0862(문자만 가능) FAX : 02-730-0887

제22대 국회 입성 불자의원 '36명+α'

4월 10일 총선 결과 살펴보니
국힘18 · 민주16 · 새미1명 당선
조국 등 비례대표서 2명 배출
21대 정각회원 24명 재선 성공

김내영 · 이민우 기자



추미애
(경기 하남시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경기 화성시병)
김병주 (경기 남양주시을)
김영배 (서울 성북구갑)
문진석 (충남 천안시갑)
민병덕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안규백 (서울 동대문구갑)
어기구 (충남 당진시)
윤건영 (서울 구로구을)
이개호 (전남 담양 · 함평 · 영광 · 장성군)
이수진 (경기 성남시중원구)
이정문 (충남 천안시병)
임호선 (충북 증평 · 진천 · 음성군)
전용기 (경기 화성시정)
백승아 (비례대표) **이상 16명**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국민의힘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선교 (경기여주시양평군)
김형동 (경북 안동시예천군)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김태호 (경남 양산시을)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을)
백종헌 (부산 금정구)
송언석 (경북 김천시)
신성범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군)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종배 (충북 충주시)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임이자 (경북 상주 · 문경시)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상 18명**



김종민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새로운미래



조국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 여야 48명 중 30명이 출마해 24명이 당선됐다.

175석으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불자는 추미애(경기 하남시갑) 당선인이 손꼽힌다. 추미애 당선인은 같은 불자 후보인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현재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에서 활동하며 불교 전통문화 보존 관리를 위해 힘쓴 서영교(서울 중랑구갑)·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당선인 역시 재선에 성공한 여성 불자 국회의원이다.

국회 정각회 야당 수석간사이자 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당선인도 신심 깊은 불자다.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은 전통사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사찰 규제해소 개정안'을 발의한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당선인과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당선인도 재선했다.

64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남도청공무원불자회장을 8년간 역임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4선 의원이 됐다. 제3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역임한 권칠승(경기 화성시병)·어기구(충남 당진시) 당선인은 각각 3선에 성공했다. 불자로 알려진 백승아 당선인은 비례대표로 합류한다.

이 밖에도 민병덕(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전용기(경기 화성시정), 윤건영(서울 구로구을),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후보가 당선됐다.

108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대표 불자 정치인은 단연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당선인이다. 불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해 어려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20·21대 국회 하반기 정각회장을 맡아 불교계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202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불교 관련 규제 법령 해결에도 앞장섰다. 2004년 대구 수성을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2대까지 내리 6선에 성공했다.

정각회 수석부회장이자 2013년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역임한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당선인은 19·20·21대에 이어 4선으로 지역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보좌진 시절 불자 모임인 '법우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취임한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당선인도 재선이 확정됐다. 김석기(경북 경주시) 당선인은 어머니 영향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20·21대 국회 정각회원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신라왕경 복원사업' 추진을 이끌기도 했다.

양평군수를 3차례나 지낸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당선인은 지역 사찰과 교류가 넓은 불자로 알려졌다. 2016년 지역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에게 감사패를 받은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당선인도 4선에 안착했다.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백종헌(부산 금정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신성범(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이종배(충북 충주시),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불자 당선인도 22대 국회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김종민(세종 세종특별자치시갑) 당선인은 류제화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당선인도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두 의원 모두 신심 깊은 불자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 사노위 5기 출범…위원장 지몽 스님

4월 11일 위원 31명 위촉
신규위원에 지철 스님 합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5기에 위촉된 승 · 재가 위원들.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연대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5기를 출범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5기 사노위 위촉식을 열고 승가위원 25명과 재가위원 6명, 총 3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5명의 승가위원 중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당연직으로 합류하며 4기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고금 스님, 혜도 스님, 혜문 스님, 시경 스님 등 기존 위원들이 재위촉됐다. 신규 위원으로는 지철 스님(월정사 사회국장)이 참여했다. 재가위원으로는 권승복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등 6명이 재위촉됐다.

진우 스님은 "사노위는 2012년 출범해 노동, 인권, 빈곤, 장애, 성소수자, 사회적 참사 희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 부처님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산재 사망 노동자, 이주노동자, 발달중증장애인, 차별금지법, 송파세모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이들을 함께 위로하고 도운 사노위의 행동이 바로 자리이타고 보살행"이라고 치하했다. 스님은 또한 "이러한 행동들이 사회에 알려지면 자연스럽게 전법과 포교로 이어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포교를 펼치는 사노위 위원들에게 종단을 대표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노위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종단과 사부대중의 지원 및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무소의 뿔처럼 실천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조계종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5기 위원장에 지몽 스님, 수석부위원장에 고금 스님, 신규 부위원장에 시경 스님이 선출됐다.

5기 사노위는 4월 13일 팽목항 세월호 10주기 해상 추모재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이민우 기자

6대 총림 실사, 4월 29일부터 9일간

교육기관 비롯해 인사 · 직제 · 재정 등 현황조사

조계종 6대 총림의 현황을 파악할 총림 실사가 오는 4월 29일부터 9일간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재안 스님)는 4월 1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총림 실사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실사는 동화사·해인사, 범어사·통도사, 송광사·수덕사를 권역별로 묶어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총림마다 주요 행사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총림과 일정을 협의해 실사하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회의에서 교육원이 파악한 전국 13개 강원의 운영현황을 확인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6대 총림을 포함한 9개 사미 강원 중 기준인원 20명을 충족한 곳은 통도사와 해인사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사미니 강원 4곳 중에서는 운문사와 봉녕사만 기준을 충족했다.

총림특위는 이 같은 기본교육기관 현황뿐만 아니라 총림의 인사문제와 직제, 예산집행 내역, 방장 및 유나·수좌 유무 등 총림운영에 포함되는 사항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총림 방장의 권한 남용사례도 총림 구성원들의 제보를 받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설암 스님은 "총림의 자격요건 충족 이유가 특정 방장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며 "여러 총림 구성원들의 제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재안 스님은 "기본교육기관의 충족 여부는 총림 자격요건 중 하나일 뿐 실사의 핵심은 총림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눈높이 맞추니 통했다…이젠 신행으로 연결을

4월 4~7일 열린 불교박람회
SNS 입소문 타고 '인산인해'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인기
20명 모집에 337명 지원해
'MZ세대 취향 저격'이 요인

불교 진입장벽 낮춘 효과 커
유행서 메가 트렌드화 '숙제'
문화교육 통한 불자교육 개발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펼쳐진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EDM 공연은 2030세대에 큰 호평을 받았다.

신중일 · 이민우 기자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2030세대의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 신청이 쏟아졌다. MZ세대의 불교 진입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030세대의 관심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불교박람회는 사전등록자가 4배, 현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전년대비 3배 증가했으며, 이 중 80%가 2030세대였다.

불교박람회 개막 당일부터 인스타그램·X(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점차 증가했으며, 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도 전년대비 30배 증가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주말이었던 6~7일에는 개관 전부터 대기줄이 이어졌고, 폐관 직전까지 불교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로 박람회장이 북적였다.

특히 이번 불교박람회에서는 청년세대의 고민에 주목하고,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처방법을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큰 호평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청년리더 500인의 세대공감 토크쇼 '담마토크'는 현장관람객 만석을 기록했다.

개그맨 윤성호 씨가 '부캐'인 '뉴진 스님'으로 등장해 진행한 디제잉 쇼는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는 평가다. 또한 '자빠진 쥐' 공예품, '중생아 사랑해' 등 독특한 문구의 티셔츠 등도 MZ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를 주관한 불교신문사 사장 오심 스님은 "이번 박람회의 슬로건이 '재밌는 불교'였다. 앞선 박람회가 어른 세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MZ세대가 주인공이었고, 이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교는 '최첨단' 종교다. 어느 시대에서도 그 시대에 맞는 사상과 문화 등과 어우러져 자신만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 불교다.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는 박람회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주최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의 인기도 뜨겁다.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1, 2기는 뜨거운 화제를 모았고, 4월 6~7일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에서 진행된 3기의 인기도 높았다. 실제 3기 모집 당시 20명 모집에 총 337명이 지원해 16: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복지재단은 적절한 나이차, 간절함 등을 기준으로 3기를 선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젊은 세대가 낯설다는 감정을 힘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며 "절에서 만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흔치 않던 풍경이기에 그만큼 신기해하고 재밌어한다. 또한 템플스테이가 확산되면서 휴식과 소중한 만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나는 절로'가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박람회와 '나는 절로' 템플스테이의 흥행이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신행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문화 체험 후 SNS에 체험기를 공유하는 것은 일종의 유행이다. 최근 유행은 빨라져 최소 6개월 단위로 바뀐다"면서 "불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유행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불교에 대한 관심을 유행이 아닌 트렌드로, 나아가 메가-트렌드로 바꿔내야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문화현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김 교수는 MZ세대를 어떻게 충성신도(핵심신도)로 이끌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문턱을 낮춤으로써 불교에 호감을 갖게 된 MZ세대를 어떻게 '충성신도'화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사찰을 꾸준히 방문할 수 있는 신행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문화에 관심이 큰 세대인 만큼 '문화교육'을 '불자교육'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심 스님은 "앞선 세대의 종교 신행은 '기브 앤 테이크', (기도비 등을) 내고 얻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의 신행은 '테이크 앤 기브'가 될 것이다.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주게 된다는 것"이라며 "불교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뤄지는 만큼, 젊은 세대가 불교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신행 프로그램 등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는 절로, 전등사편' 첫날 저녁공양에서 1대1 데이트를 하게 된 선우 씨와 선화 씨(가명).

청춘남녀 20명, 인연 찾아 "나는 절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월 6~7일 '나는 절로 전등사편'

20명 모집에 총 337명 지원해
시작 전부터 인기와 관심 높아
참가자, 게임 · 사찰 데이트 하며
낯섦의 벽 허물고 새 인연 맺어

4월의 따뜻한 봄바람이 꽃가지를 흔드는 강화 전등사에 저마다의 소중한 인연을 꿈꾸는 청춘들이 찾아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전등사편'이 4월 6~7일 이틀간 강화 전등사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된 1기와 2기 모두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가운데 3기인 '전등사편'에는 20명 모집에 총 337명이 지원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적절한 나이차, 간절함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30대 미혼남녀 20명이 참가했다.

전등사 주지 여암 스님은 "한국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재단이 젊은이들을 위해 만남의 장을 마련했으니 참가자들도 좋은 인연을 맺고 앞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도한다"고 인사했다.

입재식 후 참가자들은 1분간 자기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성훈' '보현' '은채' '지수' 등 자신이 선택한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체육교사, 소방관, 공무원, 치위생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부모님의 추천' '친구의 배우자의 소개' 'SNS' 등 프로그램을 알게 된 경위 또한 다양했다. '큰아들로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기 위해' '절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등 지원동기도 밝힌 참가자들은 서로를 박수로 환영했다.

성훈 씨(가명, 32)는 "경쟁률이 높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나 자신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에게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도 준비됐다. 심목민 레크리에이션 전문 MC의 능숙한 진행 아래 참가자들은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키워나갔다.

저녁공양은 1대1 데이트로 진행됐다. 여성 참가자들의 선택으로 이어진 한 쌍은 함께 공양을 하고 경내를 산책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여성 참가자의 선택을 받은 남성 참가자들은 모두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들뜬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영수 씨(가명, 34)는 "절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될 줄 알았는데 전문 레크리에이션 MC가 진행하니 수학여행 기분도 나고 재밌었다"며 "남은 시간 동안 (나를 선택한) 여성 참가자와 대화를 더 나누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 중 무려 4쌍의 커플이 맺어지는 높은 성사율을 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나는 절로'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방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이민우 기자



줄잇는 불교동아리 창립…“재미있는 불교” 기대

4월 7일, 서울 봉은사서 창립법회
서울대·교대·시립대·한예종 동참
상월결사, 각 대학에 1000만원
경남대 ‘불락’ “MZ에 불법 홍포”

임은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동아리 창립법회에 모인 대학생들은 “청년 전법 활동을 융성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불교 미래 견인을 염원하며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대(이하 한예종)와 서울시립대가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전법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7일 경내 법왕루에서 ‘불교동아리 창립 및 학생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서울시립대와 한예종에서 불교동아리가 창립, 전법을 향한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했다. 서울시립대와 한예종 불교동아리 지도법사에는 봉은사 대학생 전법국장 능원 스님이 위촉됐다.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립대 불교동아리 ‘유명’은 불교기반 명상활동을 통해 올바른 수행과 함께 불교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창립됐다. 앞으로 명상 수행과 함께 템플스테이, 순례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접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하민성 지도교수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1년 후 정식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채수정 한예종 불교예술단 ‘건달바’ 지도교수는 “예술하는 학생들이 각자 갖고 있는 예술적 끼를 통한 전법을 위해 뭉쳤다”면서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포교에 적극 가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출발선에선 불교동아리 주인공들은 다양한 기대감을 표했다. 김세진 한예종 불교예술단 ‘건달바’ 회장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감정과 뜻의 방향을 잘 잡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길환 서울시립대 ‘여명’ 회장도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각 불교동아리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명 스님은 “부처님은 안락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지혜로운 삶을 강조했다”면서 “항상 불교와 함께하며 얻게 된 이익과 행복을 주변에 나눌수 있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대학생 전법을 이끄는 상월결사는 대학에 불교동아리 운영지원금 각 1000만원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불교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염원하며 “세상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동아리 창립은 지역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는 4월 6일 경남대 불교동아리 ‘불락’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경남대 불교동아리는 2024년 1월 통도사 화엄산림법회와 대학생전법영남결사, 통도사 템플스테이 및 수계식에 참가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2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법회에서는 동아리 지원금 전달도 이어졌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지도법사, 지도교수, 경남대학교 불교동아리 운영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과 창립지원금 100만원, 수업지원금을 전달했다. 정법사 김선정 신도회장은 정법사 장학위원회를 통해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정법사 장학위원회는 매월 다라니 기도 초공양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정법사 장학위원회는 추후 경남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제포교사회, 제29기 양성과정 입재

4월 6~7일, 합천 해인사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4월 6~7일 합천 해인사에서 ‘제29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입재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과 지난달 치러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필기시험 합격자 37명, 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입재식에서 참석대중은 회장 정혜 스님의 지도하에 화엄경 발원문을 낭독하고, 신심명을 영어로 봉독했다. 이어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이 ‘범패 수행과 포교방법론’을 주제로 법문을 펼쳤다. 2시간 동안 이어진 법문은 육성 노래와 춤이 곁들여져 감동을 더했다.

저녁 공양 이후에는 회장 정혜 스님과 해인 스님, 지선 스님의 지도로 목탁집전 습의 교육과 오리엔테이션 및 영어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둘째 날 참석대중은 새벽예불에 참석한 후 성철 스님 부도 앞에서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대장경과 판경에 대해 법문하기도 했다. 특히 예비포교사들이 그간 신심명을 사경한 오색화선지를 머리에 이고 일승법계도를 도는 정대 행사에 동참해 국제 전법 의지를 재차 다졌다. 대장경 판전 견학 후 근처 원당암, 홍제암, 백련암, 희랑대 등 참배로 1박 2일 일정은 마무리됐다.

예비 국제포교사들은 입재식을 시작으로 8월까지 총 37강에 이르는 양성과정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중 2/3 이상(26강) 교육은 영어로 진행된다.

양성과정을 수료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조계종 포교원과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면접을 거쳐 올해 9월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 도심 속 축제로 부처님 오심 찬탄

4월 9일, 선포식으로 봉축 시작
다양한 행사로 봉축 기쁨 나눠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4월 9일 경내 대웅전 앞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선포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봉축 행사 시작을 알렸다.〈사진〉 봉은사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불교문화 행사를 봉행하며 부처님 오심을 찬탄할 계획이다.

4월 28일에는 미륵광장에서 열리는 대학생 찬불음악 축제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 지역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한 ‘제27회 전통등 전시회’ 개막 점등식이 개최된다. 아기부처님을 씻겨드리며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관불의식 입재식은 5월 2일 진행되며 복중태아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계를 수지하는 ‘제 11회 봉축유아수계법회’, 봉은사 합창제가 5월 4일 열린다.

5월 6일에는 봉은사 연희단의 전통무용과 북장엄단, 봉은사 계층법회의 율동을 관람할 수 있는 연희한마당이, 5월 7일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을 위한 공경의 의미를 담아 봉축 효잔치가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인 5월 15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가족과 이웃의 행복과 소망을 담은 연등을 환하게 밝히는 ‘봉축 법요식’과 ‘봉축 점등식’이 봉행된다. 점등식에 이어 진행되는 ‘봉축 음악회’는 찬불가부터 국악연주,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회향한다.

주지 원명 스님은 “다채로운 행사들에 참여하며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32

임은호 기자

20살 로터스월드, 아세안 문화마당 펼쳤다

4월 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서
‘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 개최
성관 스님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창립 스무 돌을 맞은 로터스월드가 이를 기념하는 문화 교류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4월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한-아세안 문화 교류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상축사를 통해 “로터스월드가 지난 20년동안 보여준 자비행은 불자와 국민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깨닫게 해줬다”고 상찬했으며,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로터스월드가 전하는 자비의 씨앗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항출입국 공무원들과 다양한 나라 출신의 단원으로 구성된 ‘해피스타트 합창단’의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청수사 주지 지성 스님의 법고, 풍류악 사물놀이 무대로 이어졌다. 1부 공연에서는 캄보디아 전통악기(Thor So Taush)·태국 전통악기(Salor)·태국 전통춤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협연 공연이 진행됐다. 오정해 소리꾼의 ‘너영나영’ ‘배띠워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춤추는 관현악’ 공연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김경현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한지혜 메조소프라노가 ‘만다라화’를 열창했으며, 한창희 테너는 오페라 타란도트의 ‘공주는 잠 못들고(Nessun Dorma)’를 불렀다. 미얀마 출신 가수 완이화 씨가 ‘하나의 집을 원해요’ ‘꿈’ ‘나는 문제없어’를 불러 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미는 인기 가수 나태주 씨의 K-트롯 공연으로 장식됐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2004년 창립했으며,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에서 다양한 복지·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수원=신중일 기자

삼보실천승가회
신임 회장 지덕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삼보실천승려회 회원 일동
주석사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길95 천룡정사 054-336-0052

한 발, 한 발 서로의 눈이 되는 '끈끈한 산행'



봉사자 배낭에 묶인 50cm 남짓한 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발맞춰 산에 오르다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른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특집

'시각장애인 연화산악회' 산행 현장

양평 하계산=임은호 기자

볕 좋은 4월 둘째 날, 움트는 새싹으로 뒤덮인 양평 하계산 산길. 시각장애인 등산모임 '연화산악회' 회원 10명이 정상까지 부지런히 줄지어 산에 올랐다.

하계산 높이는 해발 326m. 동행취재 기자를 배려해 이번 주는 특별히 나지막한 산으로 산행을 결정했다는 이들은 시각장애인 4명과 지원봉사자 6명으로 구성됐다. 산행 내내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1대 1로 짝을 이뤘다. 길을 안내하는 선두대장을 필두로 시각장애인은 한 손으로 앞서가는 자원봉사자의 배낭에 묶인 길이 50cm의 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산용 스틱을 들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가 시각장애인이고 봉사자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나뭇가지 처져있어요. 이마 조심해요~."

앞서가는 봉사자가 뒤따라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길의 상태나 주의할 점을 조곤조곤 알려준다.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는 순간이다.

턱턱 막히는 숨으로 산악회 일행과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취재기자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춘 시각장애인 김상희 씨가 "수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 산에 오른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줄임말)' 무시 못 하겠죠?"라고 말하자 일행 사이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매주 수요일,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불어 함께 산행한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다. '연화산악회'의 시작은 2010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애인의날 행사에서 만난 이들은 종종 친목모임을 가졌고, 이는 산행으로 이어졌다. '연화산악회'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5년 전이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에서 1993년부터 본인의 택시로 '중증장애인 세상보기' 이동봉사를 한 신광욱 거사가 총대를 메고 산악회를 출범했다. 택시기사 동료들과 30년 넘게 순례 이동봉사를 진행해온 신광욱 거사는 "평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각장애인들이 나들이와 함께 체력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등산만큼 좋은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 '연화산악회' 시각장애인 회원은 9명.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산행에 참여하고 싶다고 문의하지만 함께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산행은 시각장애인과 봉사자가 1대 1 짝을 이뤄 가는 것이 필수이기에, 봉사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회원을 더 늘릴 수가 없다.

산행에서는 시각장애인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다. 감각이 뛰어난 시각장애인들은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금세 알아차리고 지적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각장애인들의 말이다.



선두대장을 따라 짝 맞춰 나란히 산을 오르고 있는 연화산악회원들.

장애인·봉사자 의지하며 산행

매주 수요일은 산에 가는 날

"우리는 가족이다" 건배사도

5월에는 1박 2일 지리산 도전

가끔은 위험한 순간도 맞닥뜨린다. 늘 신경 쓰며 걷지만 나무뿌리에 발이 걸릴 때도 있고 바위에 발이 미끄러질 때도 많다. 위험한 고비가 있어도 서로를 믿고 한 발 한 발 정상을 향해 가면서 이들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진다.

정상에서 함께 점심을 먹을 때도 시각장애인과 봉사자는 짝을 지어 앉는다. 밑반찬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릇에 떠주며 원활한 식사를 돕는다.

하계산에 오른 이날,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에서 온갖 반찬들이 쏟아져 나왔다. 즉석에서 새콤달콤 초장에 묻혀낸 봄동, 소시지 야채볶음, 미역무침까지 다양한 반찬을 서로 나누며 든든하게 속을 채운다. 가끔은 막걸리 한 잔씩을 돌리기도 한다. "우리는 가족이다"를 건배사로 정다운 식사를 함께 나누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년간 이어진 산행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상용 산악회장은 "전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는데, 등산을 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신감이 붙었다"고 밝게 웃었다.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 산악회 부회장은 "남편과 아이들이 등산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부회장은 "장애가 있음에도 활동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엄마를 보고 두 자녀는 사회복지사가 됐다"면서 "산행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단단해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산행 중 도시락을 나누며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정상에 도착해서 남기는 기념사진은 필수다.

김근철 씨는 "장애인들에게 체력은 자신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시절 시력을 잃은 그는 재활원에서 운동을 시작해 국가대표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도 출전한 역도인이다. 40여 년을 선수와 코치로 활동한 그는 은퇴 후에도 체력 단련을 위해 자주 산에 오른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동안 겪은 위험과 고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면서 "산에 여러 번 올라 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산행은 일상생활에 활력이 된다. 전상용 씨와 호흡을 맞추는 강용길 씨는 서로 사촌지간이다. 사촌 동생과 함께 산에 오르기 위해 주말에 일하고 수요일을 휴무로 정할 만큼 산행에 진심인 강용길 씨는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산에 오르다 보니 예전보다 진한 가족애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화산악회'는 산행을 할 때마다 1만원씩 회비를 걷는다. 총무가 잘 관리했다가 우천으로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날에는 산행 후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한다. 예산이 부족하기에 산행은 서울에서 지하철로 갈 수 있는 산을 주로 택한다. 이동차량을 대절해야 하는 지방 산행은 일년에 한두 번 가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회비를 차곡차곡 모아 한 번씩은 꼭 지역의 명산을 오르기 위해 노력한다.

김학래 선두대장의 목표는 '연화산악회'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이 가기 좋은 한국 100대 명산'을 꾸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79개 산에 올랐으니 100대 명산을 소개할 날이 머지않았다.

'연화산악회'는 5월, 1박 2일 지리산 등반에 도전한다. 태백산과 한라산에 이어 지난해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후 다들 자신감이 붙었다. 김학래 선두대장은 "오랫동안 준비했기에 회원 모두가 의욕이 대단하다"면서 "보이지 않는 험한 산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의 특별한 산행을 마음으로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룸비니, 보드가야 부처님을 사진으로 만나세요

※ 작품사진 크기 5x7cm 사이즈
(액자포함 1만원) 택배비 별도

사진 구매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사르나트 초전법륜상

▼우주의 중심, 수미산





◀파키스탄 부처님 고행상

▼보드가야 대탑 부처님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최고의 성지
보드가야 마하보디사원 대탑 내
부처님 항마족지인상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탄생상



“스님 관심 덕분에 다시 찾아왔어요!”

4개 대학 동아리 ‘영남결사’
부산 한마음선원 템플스테이
학생들 호평에 다시 참가해
각 동아리 전법지원금 전달도

이도경 부산지사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영남결사’ 학생들과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이 밝은 표정으로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대학생 포교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다. 각 교구본사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를 위한 기금 전달이 이뤄지면서 대학마다 불교동아리 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 4개 대학교 불교동아리의 결사체인 ‘영남결사’의 활동 역시 눈길을 끈다.

영남결사는 부산대, 경상대, 창원대, 대동대 등 부산경남 지역대학의 불교동아리 연합체다. 영남결사는 지난해 9월에 이어 4월 5~6일 1박2일간 다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을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다.

‘명상치유와 힐링’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4개 대학의 법우 16명이 참여했다. 영남결사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을 다시 찾은 것은 법우들의 높은 만족도에 더해 대학생 전법에 뜻을 세운 부산지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져 온 결실이다.

1일차에는 △윤회담 △스님과의 대화 △명상 △촛불명상이, 2일차는 △새벽예불 △소감 나눔 △회향법어 △후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첫 프로그램 ‘윤회담’에서는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며 첫 만남의 어색함을 딛고 도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채웠다. ‘스님과의 대화’는 그림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쉽게 익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어진 ‘명상과 촛불명상’은 자신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초 형상으로 직접 만들어 태우며 명상하는 시간. 자신이 만든 초가 녹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녹여가자는 취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소감문에서 이번에 배운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지 부산대 불교동아리 회원(건축학과)은 “그동안 혼잡하고 괴로웠던 내면을 정돈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깊은 바다는 소용돌이가 쳐도 잠잠하듯이 모든 상념과 고통도 한마음으로 회귀하여 내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자신의 내면에 한마음이 있다는 걸 믿고 주변 인연에 상처받거나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데서 벗어나 중심을 단단히 세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됐다”며 “이렇게 만난 한명 한명이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소중한 씨앗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회향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대학생 전법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도 불교동아리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열악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다.

김건우 부산대 불교동아리 회장은 “대학생 전법에는 무엇보다 사찰과 스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 다시 오게 된 것도 지난해 행사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락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법문 책자 등 소중한 선물도 주시니 참여 학생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이런 학생들의 바람을 경청하고 회향의 자리에서 불교동아리 네 곳에 전법지원금을 전달했다. 동아리 회장들은 “이미 지난번에 받은 지원금으로 동아리 활동비도 유용하게 활용했다”면서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혜도 스님은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참된 삶의 길을 찾아 부처님 도량에 들어선 소중한 인연들”이라며 “내 마음의 무한 능력을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나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 늘 마음을 함께 내겠다”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보물 된 〈예념미타도량참법〉 보전 다짐

부산 선광사 소장한 권6~10
성문 스님 은사스님이 전해


보물지정서를 함께 든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부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는 4월 9일 경내 대웅전에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주지 성문 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선광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주지 성문 스님은 “은사스님께서 전해주신 불교의례집이라 더욱 의미가 있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집이라 무엇보다 소중한 뜻으로 생각한다”며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잇고 소중하게 가치를 증명 받은 것만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도 불교문화에 담긴 성보의 뜻을 널리 알리고 잘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선광사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유산이 있는 것은 사상구 구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함께해주신 모든 신도님들과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관하고 전승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15년 전 성문 스님의 은사 일월 스님이 전달한 것으로 선광사에 보관됐다. 성문 스님은 문화재적 가치를 확인하고자 학술연구 및 논문 등을 발표하고 가치를 증명했으며, 지난 2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247호로 지정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는 〈귀의서삼방보〉 〈극락장엄〉 〈발원왕생〉 등 13편의 불교의례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의식집이다. 조선 성종 5년(1474)에 판각해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 초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시 안녕 기원한 산신재

관음사, 쌀 1080㎏ 기부도



부산 범내산 관음사(주지 천웅 스님)가 4월 7일 경내 일원에서 ‘제4회 산신재 및 용왕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주지 천웅 스님을 비롯해 신도 및 지역민이 동참했으며, 관음사는 산신재를 통해 부산시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했다. 아울러 백미 1080㎏을 소외이웃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역민을 위한 화합 한마당을 개최해 65인치 대형TV 등 다양한 경품을 선물했다.

주지 천웅 스님은 “용왕을 모신 것은 바다를 상징하는 지역의 정서를 담고 좀 더 친근하게 지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편”이라며 “지역민이 함께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한 원력을 담았다. 나눔과 포교로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교종, 국태민안·평화통일 기원

수륙대재 · 동물 추모재 봉행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대풍 스님)은 4월 7일 경주 감포 문무대왕릉 봉길리 해변 일원에서 ‘국태민안과 평화통일 기원 수륙대재’ 및 ‘반려동물 극락왕생 발원 추모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총무원장 대풍 스님을 비롯해 석용 스님(지화장 인간문화재 경도63호), 해진 스님, 청명 스님 등 종단 소속 10개 사찰에서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대풍 스님은 불자들의 신행, 반려동물에 대한 인연 및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수륙대재를 통해 불자님들이 조상과 부모에 감사함을 느끼고 효를 실천하길 바란다”며 “부처님의 가피로 유주무주 고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려동물인구는 1500만여 명에 이른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중요함을 알리기 위해 선교종 소속 사찰은 반려동물을 위한 극락왕생 천도재를 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파라미타, 2024년도 발대식

4월 6일, 신입생 환영회 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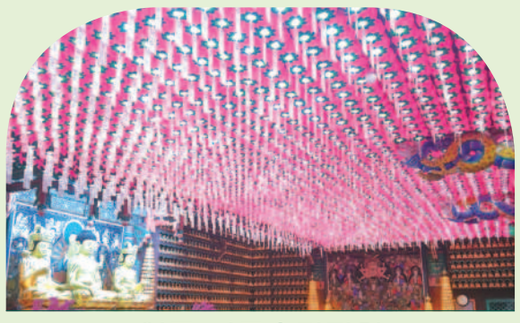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4월 6일 금정총림 범어사 보제루에서 ‘신입생 환영회 및 2024년도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총재 정오 스님, 부총재 도담 스님을 비롯해 백명숙 협회장과 운영위원, 학생 등 370여 명이 동참했다.

총재 정오 스님은 “파라미타 활동의 근간인 불교는 여러분이 성장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소중한 자산이고 등불이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마음자리가 깊은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부산파라미타는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지부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여러분 일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힐링할 수 있는 활동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


원불전


법당특별장엄등

장엄등 절찬 판매


만월등


팔각등

장엄등


도량장엄등


인 등


위 패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www.boryeon.com 시공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Instagram NAVER 블로그 검색 : 보련기획

사명 · 서산 · 영규 대사 호국정신을 기리다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향사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사명대사 등 의승군 호국정신 조명
석길암 교수 "전쟁 참여, 자비 방편"
표충사 '비단벌레' 서식 연구 MOU도

성낙두 경남지사장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사명당 송운 대사, 청허당 서산 대사, 기허당 영규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밀양 표충사의 향사와 관련된 학술세미나가 4월 5일 밀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주최하고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석길암 교수)이 주관한 이날 학술세미나는 이철헌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표충사 향사, 그 연원과 전승', 석길암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의 '호국, 호법 정신과 의승병'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석길암 교수는 '호국, 호법 정신과 의승병, 승려들의 참전 연유-사명 유정의 경우를 중심으로'를 통해 호국의 의미와 임진왜란 당시 불교계의 활약을 되짚었다.

석길암 교수는 "사명 유정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표충사를 매개로 의승군의 활동과 조선시대 불교계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석 교수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참전 배경은 중생구제와 자비심, 방편 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의승군의 참전은 월계라는 비판도 있지만 조선왕실의 존속과 중생구제를 위해 참전의 결단을 내린 조선 의승군의 활동은 목숨을 담보로 승단의 존속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의 갈등으로 분열돼 있는 이 시점에 사명 스님께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자비스럽게 여긴 애민 정신을 우리가 본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충사 향사의 의미를 밝히는 학술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밀양 표충사는 숲속의 작은 친구들(대표 이용화)과 4월 5일 표충사 일대 서식지가 확인된 천연기념물 496호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비단벌레의 생태연구와 증식·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르면 표충사와 ㈜숲속의 작은 친구들은 비단벌레 생태연구를 통한 증식 및 복원, 서식지 보전과 증식 개체의 서식을 위한 조사·연구, 비단벌레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와 서식지 보호 활동에 상호협력한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비단벌레의 서식지 주변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해 멸종위기인 비단벌레가 증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나아가 자연 속에 살아있는 매우 희귀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곤충들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환경 보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 취임

4월 5일 이취임법회 봉행
"책임감 갖고 발전에 최선"

태고종 경남교구 신임 종무원장에 황봉 스님이 취임했다. 태고종 경남종무원은 4월 5일 창원 힐스카이 컨벤션에서 제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과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 이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임 경남종무원장 황봉 스님, 전 종무원장 환명 스님, 봉행위원장 정광 스님,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종무원장협의회 의장 진성 스님, 석봉암 월봉 스님, 안심정사 법안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과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최형두 국회의원, 진효규 관음사 신도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경남종무원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18대 경남종무원장에 취임한 황봉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주변의 격려와 염려 덕분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취임을 맞이하게 됐다"며 "17대 종무원장 환명 스님을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의 공적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황봉 스님은 이어 "종무행정을 하나하나 체득하고 가슴 깊이 새겨 경남 종도들과 함께 태고보우국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경남종무원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남종무원에 500여 부처님을 조성하고 불교대학 개설과 종무원사 이전에 따른 부채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취임하는 황봉 스님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과 전 종무원장 환명 스님께도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남교구는 종단의 중심 교구로, 종단 발전과 종단의 중점 종책사업에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해왔다. 경남교구와 종단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마중물이 되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경남종무원 18대 종무원장 황봉 스님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임하는 환명 스님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며 임기 동안 경남종무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치하했다.

17대 종무원장의 소임을 마친 환명 스님은 이임사에서 "임기 중 종도들의 숙원사업인 종무원사의 건립을 완료하였지만 종무원 이전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18대 종무원장에 취임하는 황봉 스님께서 오랫동안 종무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 탁월한 역량으로 숙원사업들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산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은 태고종 경남종무원 무료급식소 지원을 위해 백미 3000kg을 황봉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정호당 영호 대종사 76주기 추모재

부도전서 역대조사 다례재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7일 근대 한국불교의 선구자이자 대석학인 정호당 영호 대종사 76주기 추모재와 역대 조사스님들의 다례재를 경내 대웅보전과 부도전에서 각각 봉행했다.〈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그동안 정호당 영호 대종사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동국대에서 전서를, 불교TV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발전과 선운사의 발전을 위해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선양사업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대종사 추모재에 이어 부도전에서는 지난해 입적한 서광당 재덕스님의 부도탑 제막식과 선운사 역대 조사스님들에 대한 다례재가 진행됐다. 참석대중은 선운사 역대조사스님들의 가르침 계승을 다짐했다.

영호 스님은 율(律)·화엄(華嚴)종주인 백파긍선스님의 법손으로 선(禪)과 교(敎)를 겸수한 선사이자 강백이며 율사로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대석학이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4월 7일 경내 대웅전서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갈수 스님)는 4월 7일 경내 대웅전에서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갈수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대충 대종사는 관세음보살을 100만 독송할 것을 누구에게나 권하셨고, 남을 구제하는 일에 앞서 본인 스스로가 제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후학인 우리도 관음정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원로위원 동명 스님은 "항상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공부를 하라"는 법어를 내리고 관음정진 100만 독 봉행번을 이인범 광수사 신도회장에게 수여했다.

기념법회에는 원로위원 동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한편, 광수사는 관음정진 100만독 불사를 4월 7일에 결제해 7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봉행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반야사, 영산전 낙성·16나한 점안 봉불식

전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증명



창원 반야사(주지 혜명 스님)가 4월 7일 '영산전 낙성법회 및 16나한 점안 봉불식'을 봉행했다.〈사진〉

증명법사로 동참한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늘 염불하고 선정에 들고 주력 수행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나라와 사회, 나와 나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웅전 불사를 회향하고 10년 만에 영산전과 16나한 점안법회를 회향하게 됐다. 16나한은 이승에 거하며 부처의 정법을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를 상징한다"며 "불사 중 코로나 사태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불사에 동참한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시적암, 산속 농부학교 입학식

전남 화순 시적암(주지 법일 스님)이 4월 6일 경내에서 '제2회 산속농부학교' 입학식을 갖고 사찰·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농부학교를 시작했다.〈사진〉

모후산생태협동조합(주) 주최로 이날 개교한 산속농부학교는 4월 6일 개강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매월 2회씩 파종하는 농산물에 대한 관련 지식과 재배 방법을 배운다. 5월 산사물체험 특강, 6월 친환경 농법 견학, 7월~8월 유기농업, 9월 과일 수확체험, 10월 밤 수확체험, 11월 숲체험 등 특별 강좌와 견학 등을 진행한다.

법일 스님은 "산속농부학교를 통해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환경을 살리는 농사,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주불교회관 '리틀붓다' 입학식

진주불교회관(이사장 홍수승)이 4월 6일 진주불교회관 3층 법당에서 어린이 법회 '리틀붓다' 입학식을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는 홍수승 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안정임 부이사장, 지도법사 희묵 스님을 비롯해 입학 어린이 25명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다. 홍수승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린이들이 지혜롭고 선한 마음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삶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리틀붓다는 5세~13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리, 불교 동화, 퀴즈, 찬불가를 가르친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도 강의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피치 교육도 진행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천불교사암연, 봉축 점등식

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문 스님)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7일 제천역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문 스님과 연합회 회원 스님들을 비롯해 김창규 제천시장, 이정임 제천시의회의장, 김상수 제천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문 스님은 "지난해까지 제천시민회관에서 열었던 점등식을 올해부터는 제천역 광장에서 봉행하게 됐다"면서 "자연 치유의 도시인 제천시의 모든 시민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불교사암연합회의 봉축장엄등은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밝히게 된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 위문 공연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스님)과 (사)붓다 봉사단(단장 이재현)이 4월 6일 육군 35보명사단(사단장 오혁재 소장) 호국충경사(법사 정인)를 방문해 특별법회를 열고 위문공연을 펼쳤다.〈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은 "우리나라는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청정하게 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박서준 훈련병은 "진성 스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제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이렇게 볼거리랑 즐길거리 마련해 주셔서 남은 군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솔암, 속옷 구입비 지원

고창 도솔암(주지 성본 스님)은 4월 11일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에 '도솔암 성본 스님의 토닥토닥 프로젝트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기금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속옷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성본 스님은 "많은 신도분들이 마음을 내주셔서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경내 무료 찻방에서 보시기금을 마련해 매월 50만원씩 모연했다"며 "아이들 본인이 고른 속옷을 입으며 자존감을 높여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원은 매월 3~4명씩 각 학교 교육복지사의 추천으로 1인당 15만원 내외의 속옷 세트가 지원되며, 해당 아이들이 직접 속옷 가게를 방문해 구입하는 형식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리랑카 종정, 달라이라마에 불사리 증정

4월 4일, 인도 다람살라 방문
카필라성 출토 불사리 선물
"中, 달라이라마 방문 막아"
정치인 아닌 불교인 강조도

박영빈 객원기자


마힌다완사 스님과 함께 사리탑을 손에 받들고 관저로 탑을 이운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스리랑카 불교 3대 종단 중 하나인 아마라푸라 니카야 종단 종정 와스카두웨 마힌다완사(Waskaduwe Mahindawansa) 스님이 4월 4일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 달라이라마에게 근본 8탑 중 하나인 카필라성 불탑유적에서 출토된 불사리를 증정했다. 역사적인 사건을 '자유 아시아 방송' '힌두스탄 타임즈' '위온' 등의 외신이 대서특필했다.

지난 4월 4일 달라이라마의 직속 사원인 남갤사원과 달라이라마 관저에서 봉행된 불사리 이운식과 증정식에는 현지불자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지의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마힌다완사 스님과 스리랑카 대표단은 4일 오전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의 캉그라 공항에 도착, 불사리가 봉안된 금빛 사리탑을 들고 인도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다람살라로 향했다. 현지 티베트인 불자들은 손에 꽃과 향과 같은 공양물들을 들고 공항에서부터 불사리를 맞이하러 나왔다.

마힌다완사 스님은 "이 사리는 부처님이 입멸하시고 처음 세워진 사리탑들인 근본 8탑 중, 부처님 친척들인 샤카족들이 세운 카필라바스투성의 불탑에서 출토됐다"면서 "탑을 발굴한 윌리엄 페페와 당시 저명한 고고학자였던 알렉산더 커닝험은 사리 일부를 당시 스리랑카에서 가장 존경받던 장로였던 와스카두웨 스리 수부티 스님께 선물했고, 이래로 이 사리는 대대로 나의 사찰에서 지켜져 왔다"며 내력을 밝혔다.

스님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불교 지도자"라면서 "나는 오래전에 여러 차례 달라이라마 존자의 법문을 보고 듣게 되었다. 이후 다른 많은 사람에게 달라이라마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묻고, 숙고한 끝에 직접 만나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금까지 203번의 만남을 가졌고, '스리랑카-티베트 불교형제단'도 창설됐다"면서 "나는 이 깊은 인연에 감사를 표하여 스리랑카의 특별한 보물을 선물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것이 바로 이 카필라바스투의 불사리"라고 달라이라마에게 사리를 증정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사리탑은 남갤사원 산문에서 달라이라마 관저 앞까지 티베트 고승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운됐다. 남갤사원의 스님들은 법구들을 연주하고 향과 깃발을 들어 불사리를 환영했으며, 현지 불자들은 사리탑을 향해 꽃과 비단 스카프를 던져 경의를 표했다.

달라이라마는 직접 관저 앞으로 나와 사리에 예를 표했으며, 마힌다완사 스님과 함께 사리탑을 손에 받들고 관저로 탑을 이운했다. 달라이라마는 스리랑카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 세계는 평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가르침의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불교 자체를 언급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윤리와 자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항상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마힌다완사 스님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스리랑카 불교계는 달라이라마를 존경하며, 여러차례 스리랑카에 초청했으나, 중국 정부가 스리랑카 정부를 압박했고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스리랑카 불교계는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달라이라마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불교 지도자이고 자유가 있으며, 우리 역시 초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日, 300년 만에 대수리를 마친 불상 2구 귀향

하쿠잔 신사 봉안 대일여래상
지역 모금 통해 복원비 마련


수리가 완료된 불상에 예경하는 101세의 노인.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600년 전에 조성돼 300년 만에 수리를 마친 불상 2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지난 4월 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일본 이와테현(岩手県) 하나마키시(花巻市)에 소재한 하쿠잔 신사(白山神社)에 봉안돼 있던 불상의 수리가 종료, 대중들에게 공개됐다고 전했다.

한국의 전통신앙이 불교에 흡수된 것처럼, 일본 역시 고유의 종교인 신토(神道)가 불교와 융합된 신불습합(神佛習合)의 전통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영향에서 사찰 경내에 신사가 있거나, 반대로 신사에서 불상을 봉안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대에 들어 이 둘을 분리하려는 운동이 일어나 신사에 봉안돼 있던 불상이나 불구가 대거 훼손되던 시기가 있었다. 한편 하쿠잔 신사에 봉안된 2구의 대일여래상은 이러한 시기를 무사히 넘긴 드문 사례로 지금도 신사 경내의 불당에 봉안, 현 지정문화재로 등록돼있다.

하쿠잔 신사의 대일여래상은 각각 불상에 남은 명문과 신사의 기록에 따라 1389년과 1700년에 조성된 것이다. 하나마키시 교육위원회는 "1389년의 불상은 당시 현지의 호족가문이었던 오하타 씨가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며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1700년의 불상은 앞선 불상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당시 지역주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불상은 모두 계수나무로 조성된 좌상으로 높이 150cm의 대형 불상. 두 불상 모두 세월에 따른 부식과 충해 등으로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동일본 대지진 당시 더욱 훼손이 심해졌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제기와 지역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가에서 4분의 3을, 나머지는 지역 모금을 통해 복원비가 마련됐다.

2021년부터 진행된 복원작업은 문화재 복원전문 장인인 나스카와 요시오에 의해 진행됐다. 나스카와 장인은 "14세기의 불상은 1722년에 한차례 수리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진행된 충해로 인해 주의해서 만지지 않으면 불상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상태에 이르렀다. 불상 내부에 척추역할을 하는 나무기둥을 삽입하고, 벌레 먹은 구멍에 수지를 주사해 굳히는 작업 등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불상의 수리가 종료되고 대중에 공개되던 날 불상을 맞이한 주민들 모두 감개무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올해 101세를 맞이한 한 노인은 어렸을 적부터 예경해 온 불상이 돌아온 것을 보고 "수리가 시작된다는 말을 듣곤 생전에 다시 부처님들을 친견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리 말끔해진 모습을 보니 살아있길 다행"이라며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불교 유적지서 고대 동전 수천 개 출토

기원전 1세기경 주조 추측돼
인도 전설의 왕조 실존 증거


파니기리 불교 유적에서 출토된 납 주화가 담긴 토기 항아리. 사진 출처=인도 문화유산부

인도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에서 고대 동전 수천 개가 담긴 토기 항아리가 발견돼 화제다.

지난 4월 5일 인도 언론 '더 힌두'는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이크슈바크 왕조(태양 왕조, 기원전 11세기~기원전 476년)때 주조된 고대 동전 수천 개가 담긴 토기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파니기리 불교유적지는 데칸의 서쪽과 동쪽 해안을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닥시나파타) 인근 언덕에 건립된 정사(精舍)로 고대 문화와 경제 교류의 중심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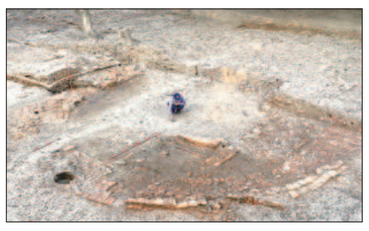
인도 문화유산부는 3월 29일 파니기리 불교 유적지 발굴조사에서 지름 16.7cm, 높이 15cm 크기의 토기 구형 항아리를 발견했다. 항아리 안에는 이크슈바크 왕조 때 주조된 고대 납 주화 3730개가 들어있었다.

인도 문화유산부 바라티 홀리케리 국장은 30일 발굴 현장을 방문한 뒤 "인도 유적발굴 사상 최초로 한 곳에서 대량의 주화가 출토됐다"면서 "지층학과 유형학 연구를 통해 이 동전은 이크슈바크 왕조 때 주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불교 역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또한 납 주화의 발견은 인도에 보존된 불교 유산의 풍부함과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원전 11세기~기원전 476년 사이에 번성한 이크슈바크 왕조는 인도 신화에서 아리바르타 땅을 정복하고 강력한 제국을 세우며 최초의 전륜성왕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인 이크슈바쿠를 시조로 하는 고대 인도의 전설적인 왕조이다. 그러나 이크슈바쿠 왕조를 기록한 역사·종교 문헌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해 여전히 학계에서 진위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네팔 룸비니서 불교 탑 유적 발견 화제

히말라야 지역 불교 전법 시사
지난해 탑 상륜부 파편 출토도


틸라우라코트 탑 유적지 발굴 현장.
사진 출처=나가 릭

지난 4월 1일 네팔 일간지 '나가릭'은 네팔 남부 룸비니주에서 발견된 탑 유적 소식을 전했다.

네팔 남부 룸비니주 틸라우라코트 불교 유적지에서 탑 유적이 발견됐다. 틸라우라코트는 고대 샤카족의 도시인 카필라바스투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의 고대 궁전이자 부처님의 고향으로 여겨진다.

네팔 고고학부 람 바하두르 쿠와르 최고 고고학 책임자는 "틸라우라코트 불교 유적지 발굴 과정에서 탑 유적이 발견됐다. 동부 비하르와 더르바르 지역에서 중심 구조물 범위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탑 기단부 파편과 말뚝 구멍, 기와가 나왔다. 지난해 발굴에서도 탑 상륜부 파편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다.

룸비니개발신탁의 고고학 담당자인 히말 우프레티는 "말뚝 구멍과 기단부 파편 및 기와 그리고 상륜부 파편 등을 조사한 결과 네팔 북부 히말라야 지역에서 만들어진 탑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쿠와르는 "탑은 불교 순례자들이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틸라우라코트에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 "네팔 스님에 따르면 네팔의 탑은 히말라야 스님들이 예불을 위해 세운 것으로 상좌부불교와 대승불교 전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틸라우라코트의 불교 유적지는 1996년 유네스코 잠정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물로 지정예고된 '고창 문수사 대웅전'.


보물로 지정예고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

'문수사 대웅전' '고운사 가운루' 보물된다

문화재청, 4월 9일 지정예고
조선 전·중기 공포양식 대웅전
계곡 위 대형 누각 "가치 높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4월 9일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전라도 지역 대표 문수도량인 문수사(주지 태효 스님)의 주불전(主佛殿)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건물이다.

문수사는 664년(백제 의자왕 4)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연기(緣起)설화를 바탕으로 문수보살과 문수도량 신앙적 특성을 반영해 그 위계가 잘 표현된 사찰로 알려졌다. 문수사창건기(1758년) 등 각종 기록에 따르면,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후인 1607년(선조 40) 중창됐다. 1653년(효종 4) 회적(晦跡) 성오화상(性悟和尙)이 또다시 고쳐지었는데, 그 다음해 1654년 제자인 상유(尙裕)가 삼불좌상과 시왕상 등을 조성한 기록으로 볼 때 문수사 대웅전 또한 이 시기에 중창(重創)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다포계 맞배지붕 특징을 갖고 있으며 측면에 공포(栱包)가 설치된 매우 독특한 불교 건축물(정면 3칸, 측면 2칸)로 평가받는다. 5량 구조 내외 3출목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공포의 형태와 짜임은 단순하면서도 강직한 조선 전기 이후 양식과 전라도 지역 특색이 나타난다. 1653년(효종 4) 중창 당시의 형태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4면에 공포를 배열하고 충량(衝樑)과 활주(活柱)를 사용한 팔작지붕 형식이나, 후대에 맞배지붕으로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다포계 맞배지붕의 기법과 양식을 충실하게 갖춰 외부 의장 완결성과 장엄적인 효과를 극대화해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또 대웅전의 단청 역시 문양사적 특이함과 전통 무기안료와 아교 사용 등 천연재료 특성의 옛 기법이 남아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수사 주지 태효 스님은 "2020년부터 꾸준히 대웅전의 가치를 알리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며 보물 지정을 위해 힘썼다"면서 "다포계 맞배지붕 등 득특한 특징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대웅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 기쁘다"고 보물 지정예고에 대한 기쁨을 전했다.

조계종 제16교구의 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의상대사에 의해 신라시대 때 창건한 사찰로 전해진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했으며 계곡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다. '고운사사적비' 등의 문헌사료를 통해 1668년에 건립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팔작지붕 형식을 갖춘 사찰 누각으로 조선 중·후기의 건축양식이 잘 남아 있다. 특히 계곡의 양쪽 기슭(양안)을 가로질러 배치돼 있으며, 3쌍의 긴 기둥이 계곡 바닥에서 누각을 떠받치고 있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주칸)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이 기존의 사찰누각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예고한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하여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禪명상' 주제 학술대회

5월 2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5월 2일 동국대 문화관 덕암세미나실 147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禪명상의 현대적 적용과 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미래본부에서 발주한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토론의 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추진하는 K-명상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종학연구소는 2023년 9~12월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禪명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스님과 학자들이 두루 참여, 총 5개의 주제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된다.

학술대회에서는 △국내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진본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국외 명상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자헌 스님, 동국대 교법사) △명상앱 프로그램의 실태와 발전 방향(은산 스님, 동국대 치유와 행복융합연구원) △고려대장경의 선관(禪觀) 경전 고찰(이진영, 동국대 역경원) △禪명상의 의미와 적용(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이 발표된다.

논평은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사 동하 스님, 한재희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동국대 WISE 아동청소년교육학과 부교수 혜주 스님, 정영희 동국대 명상심리상담학과 강의초빙교수, 강은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가 나선다.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외 명상프로그램 전수조사에 대한 성과보고이자 토론의 장"이라며 "K-명상의 지속화와 세계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상프로그램의 적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禪명상'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02-6713-5141

임은호 기자

불교문화연구소, 춘계 세미나 '명상과 힐링'

4월 26일, 중승대 자비관서
오철우 중승대 교수 등 발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차차석)가 4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포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춘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명상과 힐링'이다.

1섹션에서는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서산대사 선시에 나타난 힐링명상 고찰(오철우 중승대 교수) △〈능엄경〉의 명상적 특징과 그 치유적 성격(임병정 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이 발표된다. 논평에는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 석좌교수, 심일종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박사가 나선다.

손강숙 중승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되는 2섹션에서는 △초기 유가행파의 명상 체계와 그 치유적 의의(김재권 능인대학원대 교수) △〈천태소지관〉의 명상 체계와 그 치유적 특징(김선화 중앙승가대 교수)이 발제된다. 심준보 한국외대 인도학연구소 박사,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석좌교수가 논평한다.

임은호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50차 월례학술대회

4월 19일, 서울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이병욱)이 제150차 정기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월례학술대회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 법련사 3층 대웅보전에서 '불교 중도와 인공지능의 관계 그리고 인도 반야경 주석가 하리바드라'를 주제로 열린다.

주제발표에서는 △무위와 불교의 중도, 그리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관한 고찰(이홍제, X-Thinking Co) △인도불교 주석전통의 수행론 개변-4선근 서술에 관한 하리바드라의 주석을 중심으로(혜융 스님, 중앙승가대)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류제동(서강대), 보일 스님(해인사), 방정란(경상대), 이길산(경남대) 박사가 함께한다.

이날 월례학술대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튜브 검색창에 '보조사상연구원' '법련사'로 검색. 문의 bojosasang@naver.com 임은호 기자

조계종·조폐공사, 불교유산 상품화 MOU

기념 메달 공동 제작·활용에 협력
진우 스님 "국민 관심 환기" 기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4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계적인 불교문화유산 보호와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기념메달 제작 등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더불어 최근 세계적으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측의 적극적인 제의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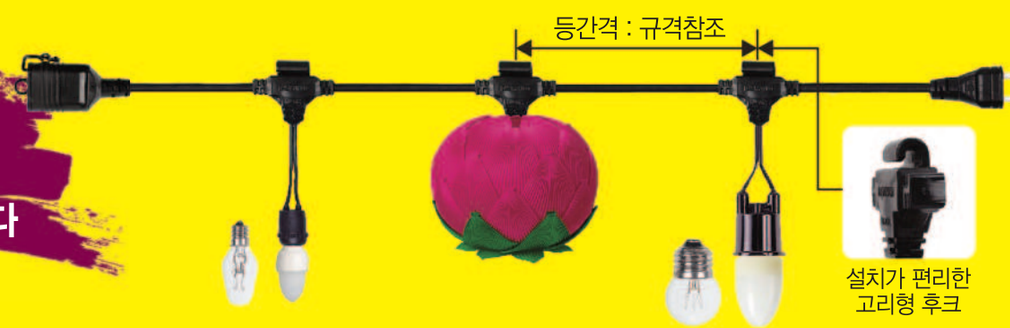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 상품화를 위한 주제 선정 및 자료제공 △불교문화유산 주제 기념 메달에 대해 공동 전시·홍보 활용 △수익금 일부 불교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후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조계종은 이번 업무 협약을 기점으로 한국조폐공사와 상호 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찰과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교구본사의 주요 불교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기념메달 제작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0~4/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6	불교상용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2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7	신심명강설(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3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불일 스님의 해탈노래(참나를 찾아서 가는 길)	서홍 불일 지음	도반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시와 함께–붓다의 대화(시와 함께 모아 엮음)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아름다운 산천초목 이야기들 담아내다



수류화개
김봉규 지음
수류책방
1만6800원

사찰 매화부터 은행나무까지
산하 물들이는 초목의 면면들
문화 기자였던 저자가 풀어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성 백양사 홍매. 고불매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봄소식을 알리는 대표적 봄꽃은 단연 매화다. 선비의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매(古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에 많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홍매화부터, 승주 선암사 고매(선암매), 양산 통도사 홍매(자장매), 장성 백양사 홍매(고불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화엄사 각황전 앞의 홍매는 많은 매화 애호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 나무 모양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목조 건물과 어우러져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선비들이 좋아했던 만큼 매화를 예찬한 조선 유학자들도 많다. 매화를 지독히도 좋아해 107수에 이르는 매화시를 남긴 퇴계 이황은 운명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매화분에 물을 주도록 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계절에 맞춰 꽃을 피워내고 단풍을 들이는 초목들은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문화가 됐고, 이야기가 됐다. 우리 예술과 전통문화를 직접 찾아가 알리는 집필 활동을 이어온 김봉규 전 영남일보 기자가 발간한 〈수류화개〉는 전국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탐사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문화 전문 베테랑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을 가까이하지 않고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전국의 산하를 누비며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직접 찾아가 소개하고, 초목 뒤에 얽힌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 제목인 '수류화개(水流花開)'는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부처님 제자를 칭송한 시 〈십팔대아라한송〉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공산무인(空山無人)'과 짝을 이뤄 쓰인다. '사람 없는 텅 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라는 뜻을 담은 이 글귀는 고금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애호한다. 추사 김정희는 서예 작품으로 남겼고, 화가 김홍도와 최북은 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화제(畵題)로 남기기도 했다. 또한 이 글귀를 자주 사용한 법정 스님은 자신의 거처에 '수류화개실'이라는 당호를 달아놓았다.

이 글귀를 특별히 좋아한 저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을 가까이해야만 물질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설파한다. 그리고 2022년 초부터 1년 동안 직접 보고 싶은 꽃과 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 저자는 계절마다 제멋을 뽐내는 매화, 진달래, 해당화, 연꽃, 이팝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등을 찾아가 그 풍광과 감흥을 전하며 초목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는 순간 온 산이 사람의 혼을 빼앗을 듯 불타오르는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부터 땅 위에서 노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탄성이 절로 나오는 반계리 은행나무까지. 저자의 발길을 따라 울긋불긋 산하를 물들이는 꽃과 나무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곳에 찾아가고픈 충동에 빠져든다. 또한 단순히 아름다운 초목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 정보와 옛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팔만대장경 중에는 벚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에 언제부터 벚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다. 〈중략〉 화엄사 계곡 일대에는 올벚나무가 많은데, 벽암 선사가 북벌을 꿈꿨던 효종의 뜻을 받들어 활, 창, 칼자루 등 무기를 만들기 위한 목재 용도로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59쪽 '벚꽃–하동 쌍계사 십리 벚꽃터널'

"연꽃은 선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연꽃을 찬미한 글로 북송 유학자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이 유명하다. 국화는 '은일'로, 연꽃은 '군자로', 모란은 '부귀로' 특징지으면서 자신은 연꽃을 사랑한다고 읊조린다."

– 119쪽 '연꽃–700년 전 씨앗이 부활한 아라홍련'

30여 년 동안 문화부 전문 기자로 활동한 저자는 그동안 우리 예술과 전통문화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핀 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집필 활동을 이어왔다. 전작 〈절집의 미학〉은 산사를 오르며 만나는 소소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묶어 불교출판문화상 보덕전법상을 수상했다. 신라 명필의 글씨부터 조선 왕의 친필까지 궁궐과 사찰, 서원과 정자 35곳에 걸린 현판을 소개한 〈현판기행〉 역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국 종가 43곳에서 전해지는 전통 음식과 술을 소개한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다. 현재는 삶과 예술에 대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 산하대지는 최고의 경전



무정설법, 자연이 쓴 경전을 읽다
최성현 지음
판미동
1만7000원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여산 동림사에서 임제종 황룡파의 개조 황룡 혜남의 법을 이은 상총 선사와 함께 선학에 대해 토론했다. 밤을 새워가며 토론을 이어가던 중 상총 선사가 소동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해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는가."

상총 선사의 따끔한 질문에 소동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무정설법'은 곧 소동파의 화두가 됐다. 아침이 돼 동림사를 나온 소동파는 여산 호계의 폭포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었다.

시냇물 소리가 곧 오묘한 법문이니(溪聲便是廣長舌)
산의 경치는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山色豈非清淨身)
밤새 설했던 이 팔만사천 게송들을(夜來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이에게 들려줄 수 있으리(他日如何擧似人)

유정설법은 중생을 위해 법사나 붓다가 설한 팔만대장경이고, 무정설법은 산하대지, 즉 자연이 전하는 법문이다. 상총 선사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경지를 소동파에게 이야기한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서로 관계를 갖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치를 보이고 있어서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이요, 유정무정(有情無情)이 실개성불(悉皆成佛)이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유정과 무정의 모든 것이 부처라는 말이다. 어찌보면 이 같은 불교의 사상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산하대지가 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유무정의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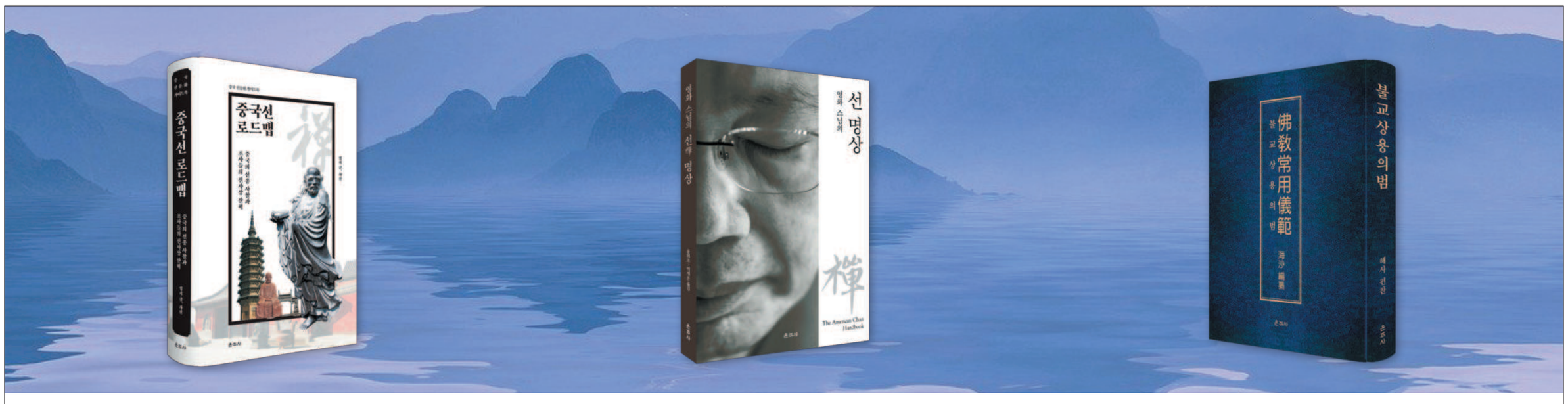
20년 동안 숲속에서 살아온 농부 작가 최성현이 자연에서 배운 가르침들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는 에세이 〈무정설법, 자연이 쓴 경전을 읽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자연의 가르침을 따르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 농사짓는 자연농법을 30년 넘게 실천해 왔다. 자연농법이란 관행농법이나 유기농법과는 달리, 논밭을 갈지 않고, 농약으로 벌레를 죽이지 않으며, 비료도 주지 않고 제초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짓는 농사법이다. 이 책에는 오랜 기간 자연의 순리를 체득하여 살아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나날의 기록이 꾸밈없이 담겨 있다. 자연에서 얻은 지혜뿐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의 생태주의적 관점 전환, 이 시대에 꼭 새겨들어야 할 인류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는 아메리카 원주민 텐돈 수족의 '서 있는 곰'의 말을 빌려 말한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며, 돌·나뭇잎·풀·실개천 등은 경전이다."

이처럼 책의 곳곳에는 자연의 말씀들이 보물처럼 담겼다. 손안의 씨앗에게서 "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희망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한겨울에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보며 "괜찮다!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 '다 내주어도 돌려주는' 하늘의 설법과 '받아들여 살려내는' 땅의 설법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의 장벽을 쉬지 않고 지우는' 풀의 설법과 '바람이 불면 맞서지 않다가도 멈추면 제 길을 가는' 나무의 설법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난 3월 30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명상 다르마톡' 법회에서 영화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미국스님이 전하는 친절한 명상법문들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영화 스님 법문
윤희조 · 박재은 옮김
운주사/ 1만5000원

지난 3월 28일 20여 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미국 위앙종 영화 스님의 저서가 잇달아 출간됐다.

운주사에서 발간한 〈영화 스님의 선 명상〉은 영화 스님이 주창하는 '아메리카 선'의 면면을 살필 수 있다. 미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전한 '아메리칸 선'은 전통적인 선 수행 방법에 현대인들의 생활환경을 감안해 변용시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행법이다. 이는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한국의 수행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책은 '선 명상'을 말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참선수행이다. 선수행의 목적은 깨달음, 즉 견성이다. 따라서 명상의 진정한 목적이 깨달음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건강이나 업무에 도움을 받는 기술 습득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을 향해 수행해가면, 당연히 삶의 실제적인 이익들은 따라오게 된다. 선이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직접적인 길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스승, 올바른 선지식의 도움과 지도가 절대적일 정도로 필수적이다. 하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영화 스님의 말처럼, 이 책이 결코 그처럼 중요한 스승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런 스승을 찾을 때까지 수행의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듯 이 책은 혼자 명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즉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고 폭넓게 설명한다. 특히 좋은 스승과 복덕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전자는 당연해 보이지만 후자의 강조는 기존의 선문화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결가부좌 수행이다. 이는 저자의 직접 체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학인들을 지도하면서 검증한 방법이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가부좌는 결코 쉬운 자세가 아니다. 익숙해지기까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효과는 고통을 감내한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실려 있어 믿음을 더해준다. 신중일 기자



복 있는 당신께, 다르마 톡
영화 스님 지음
대지 · 상욱 · 현안 · 현공 옮김
어의운하/ 1만7000원

어의운하에서 발간한 〈복 있는 당신께, 다르마 톡〉은 영화 스님의 첫 대중 법문집이다. 스님이 활동하는 미국에서도 공식 출간된 적이 없는 대중 법문집이어서 스님이 대중들에게 선과 정토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상, 관음보살 염불, 참회, 약사 부처님, 사십구재 등 한국의 불자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영화 스님이 한국의 대승불교와 같은 대승법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주제다. 그렇다고 법문이 비슷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식의 조언을 영화 스님은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머리에 총을 대고 있는데, "뭐, 괜찮아. 걱정하지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영화 스님은 이 같이 말한다.

"농담하나요? 미쳤어요? 선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머리에 총을 겨누면, '오! 오!'라고 먼저 말합니다. 이게 우선 하는 행동입니다. 다음의 행동은 뭔가요? 가능성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방아쇠를 당긴다면 나에게 생길 최악의 일이 뭘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걱정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영화 스님은 법문 주제는 낯설지 않지만, 주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한국 불자들에게는 새롭다.

이 책은 영화 스님의 명상을 접한 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도 엿볼 수 있으며, 낮은 단계의 명상이 주는 이익과 가장 높은 단계의 명상인 대승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사례와 단계별 구체적 현상의 모습을 들려준다. 특징적인 것은 영화 스님은 명상시 결가부좌를 강조한다. 처음 결가부좌를 할 때 채 10분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복 짓는 방법의 설명은 익숙하면서 새롭다. 영화 스님은 복을 다섯 가지로 나눈다. 장수, 돈(부), 좋은 명성, 안락, 건강 등이다. 이 다섯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이 복을 짓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첫째는 보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에게, 계를 수지한 이에게, 생각 없이 무념으로 보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를 지키는 것이다. 셋째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복 짓는 방법인데, 선(禪)을 하는 것이다. 신중일 기자

매듭으로 한 길 걸은 장인 인생 역정 담다



멋과 품격의 예술 매듭
박양자 지음
온샘
2만5000원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아무 것도 모르고 20대 초에 선택한 매듭의 길은 순조롭지 않은 힘든 길이었다. 한때는 자신에게 실망도 하고 후회도 했다. 그러나 그 길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내면서 묵묵히 자신을 극복해온 과정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매듭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박물관이 아닌 매듭 장인의 길을 선택한 박양자 선생은 최근 발간한 저서 〈멋과 품격의 예술 매듭〉에서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최선일)가 기획한 현대 장인열전의 중 첫 번째 시리즈인 이 책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옛 전통을 복원, 계승하고 있는 현대 장인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은 저자 박양자의 삶의 기록이자 매듭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매듭장을 관리하는 등 크게 번성했지만 19세기 이후 개화와 서양문물의 유입은 전통매듭의 쇠퇴를 가져왔고 현재는 일부 매듭장을 중심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옛날 선조들의 초상화와 엽서 사진 속에는 전통 매듭이 종종 등장한다. 매듭은 선조들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 저자는 초상화와 엽서 사진 속의 매듭을 저자가 재현한 매듭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생활 속에서 매듭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고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집과도 같은 책이다.

1장에서는 매듭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사 속의 매듭과 명주실의 천연염색과정, 끈목 짜는 도구들, 동다회, 광다회 짜는 기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매듭의 종류, 술의 종류, 제작과정 등을 살핀다.

2장에서는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매듭의 쓰임을 근대 엽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엽서에 보이는 매듭을 저자의 작품과 비교하여 사진으로 실었다.

3장에서는 20대에 김희진 선생님을 만나 이수자로서 매듭의 외길을 시작으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교육하면서 매년 여러 전시회 작품 준비, 60대에 개인전 및 초대전을 하고 매듭 교육 강사와 만학의 석사학위 취득 등 서로 쉽지 않았던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본다.

신중일 기자

금강경, 소설로 만나다



소설 금강경
백금남 지음
피플웨치
1만8000원

'약견제상비상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卽見如來)' 이는 〈금강경〉 사구게로, 모든 상이 실체가 있는 고정불변의 상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는 여래를 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금강경〉은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소의 경전으로 인도에서 2세기에 성립된 공사상의 기초가 되는 경전이다.

문학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해온 백금남 작가가 〈금강경〉을 소설화했다. 작가는 악승 데바의 비판적 시선으로 〈금강경〉을 풀어나간다.

눈길을 끄는 것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붓다의 가치관이다. 이미 비어버린 붓다 안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붓다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보여준다.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

“수행자는 윤리·지성·공동선 가치 지녀야”



중화 법타 대종사는… 1965년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추담 스님이 입적한 뒤 일타 스님에게 건당하여 법상자가 됐다. 1974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동 대학원 인도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1996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클레이튼 대학에서 ‘20세기 근세 북한불교에 관한 연구’로 종교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결성해 국수공장, 빵공장 등을 설립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한 남북교류에 매진해 왔다.
1998년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주도했으며, 북한 사찰 및 불교문화재 보존에도 선도적 역할을 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불교신문 부사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동국대 정각원장 등을 역임했다. 10.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도 했다.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데 이어 2021년 은해사 조실에 추대돼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4월 9일 거조사(居祖寺)에는 꽃비가 내렸다. 부는 바람에 꽃잎들이 난분분 흩날리다가 마당에 내려앉았고, 마당에 쌓인 꽃잎들이 다시 바람에 몸을 맡기고 뒹굴었다. 거조사 마당에는 꽃잎으로 수놓은 만다라 문양(文樣)이 만들어졌다. 693년(효소왕 2) 원참조사가 창건한 거조사는 불조님(祖)이 주석하시는(居) 가람(寺)이어서 팔공산의 초목들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리라. 필자는 국보 14호로 지정된 정면 7칸, 측면 3칸의 주심포식(柱心包式) 맞배지붕으로 지어진 영산전(靈山殿)에 들어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뒤 석조나한상 526위를 살펴보았다. 각기 다른 표정을 한 석조나한상들은 불성(佛性)이 이 세상에 두루 편재(遍在)돼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거조사의 본전인 영산전은 출입문이 하나뿐이었다. 스님이든 신도든 관람객이든 차별 없이 드나드는 중앙의 문은 성속일여(聖俗一如)의 가르침을 말없이 설파하고 있었다.

영산전을 나오니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중화 법타(中和法陀) 대종사가 마당에 서서 반갑게 손을 흔드셨다. 스님은 필자를 다각실로 안내하더니 차를 내려 주었다.

“스님의 생신이 다가옵니다. 매년 생일이 되면 모든 중생의 축하를 받으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이니 봉축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법타 스님의 생일은 음력 4월 초파일, 즉, 부처님오신날이다. 스님이 맑게 웃은 뒤 입을 뗐다.

“부처님의 탄생게는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입니다. 이 탄생게에서 아(我)는 한 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는 천부인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解脫)보다는 중생의 구제(救濟)를 중시해왔습니다. 불자라면 설령 자신의 해탈을 뒤로 미루더라도 남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는 ‘자미득도선도타(自未得度先度他)’의 정신을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중생구제는 자전거 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월주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타 스님은 총무부장 소임을 봤다. 당시 총무원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는 ‘깨달음의 사회화’였다. 법타 스님은 ‘깨달음의 사회화’에 대해 “파사현정(破邪顯正), 즉,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교의에 입각한 시대적 구호였다”고 덧붙였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근간입니다. 자비가 수반되지 않는 지혜나 지혜가 수반되지 않는 자비는 결과적으로 공허한 울림만을 남길 것입니다.”

부처님 탄생게 ‘我’, 모든 생명 의미
‘상구보리 하화중생’ 사상이 기반돼
불자는 지혜와 자비 공히 섭수해야
평생 ‘하화중생’ 위한 실천활동 펼쳐

1992년 평불협 설립, 통일운동 전개
국보법 위반으로 안양구치소 수감도
“난 부처님만 찬양” 105일만에 석방
최근엔 北이탈주민 돕기운동 전개 중

법타 스님은 ‘바른 사회의 길’과 ‘바른 승가의 길’은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승가의 구성원은 종교인이라는 자부심, 지성인이라는 자부심,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려면 먼저 종교인의 청정한 윤리, 지성인의 해박한 지식, 지도자의 공동선(共同善)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계종의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사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승가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안으로는 화합을 통해 서로 존중해야 하고, 밖으로는 사회의 목탁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 신행문화는 사회변화에 뒤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주5일제가 정착된 상황인데도 불교계는 아직도 음력 초하루 법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교계는 직장인들을 위해 휴일에 법회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사찰들은 대부분 풍광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산사는 직장인들이 휴일을 맞아 마음의 휴식처로 찾기 좋은 곳입니다. 사찰의 주지스님들은 직장인들이 산사를 찾았다가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생일이 부처님오신날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법타 스님은 태어날 때부터 불연(佛緣)이 깊었다. 탁발승이 집에 찾아와서 〈천수경〉을 독송하는 것을 보고서 스님은 처음으로 출가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 중학생이 된 뒤에는 인근 사찰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들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법주사 주지 추담(秋潭) 스님을 찾아가 “출가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추담 스님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오라”고 답했다.

법타 스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추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추담 스님은 일제강점기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다 투옥됐고, 해방 이후에는 불교정화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했다.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으로부터 애국(愛國)·애족(愛族)·애민(愛民)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애국·애족·애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타 스님은 (사)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해 30여 년 동안 이끌어왔다. 법타 스님은 평불협을 창립한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985년 미국 남가주(南加州) 대학에 입학한 뒤 저는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통일운동 단체인 ‘ONE KOREA MOVEMENT’에 가입했습니다. 불교를 대표해 평화통일운동에 전념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던 것입니다. 1989년 6월 25일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북한에 입국해 20일 동안 체류하면서 북한불교의 실상을 접했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들은 저를 ‘중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호칭이 스님으로 바뀌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월주 스님을 좌장(座長)으로 모시고 1992년 조국평화통일협의회를 창립한 뒤 ‘조국 통일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불교와 주체사상’이라는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 논문 초고를 자료집에 실었는데 그게 옥고를 치르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로 급락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시 정부는 북풍 정치공작의 희생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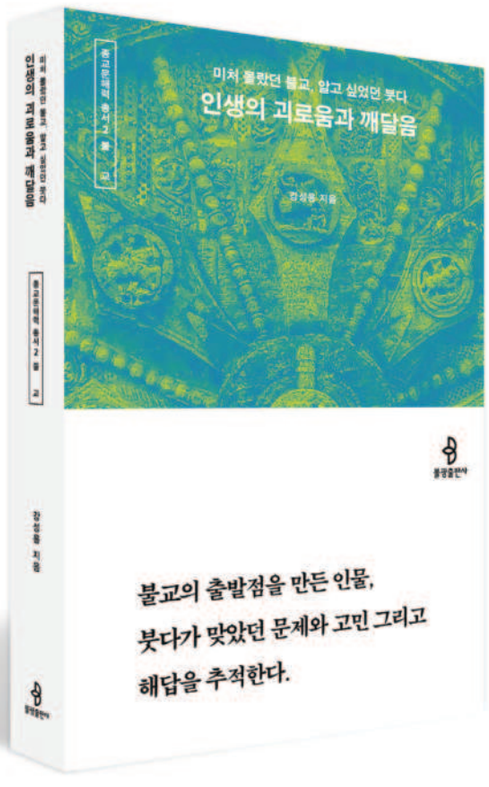
종교문해력 총서

“고생해서 고생이 사라지면 고생이 없겠네!”

까르마·사성제·팔정도·12연기·윤회의 색다른 해석
당신이 이제껏 믿어온 ‘불교’를 신박하게 뒤집다!

‘고생뿐인 인생에서 어떻게 고생을 없앨까?’라는 붓다의 2,500여 년 전 고민은 지금 우리의 고민과 같다. ‘인생은 고생’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풀고 싶다면 이 책은 해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02
미처 몰랐던 불교, 알고 싶었던 붓다
인생의 괴로움과 깨달음
강성용 지음 | 344쪽 | 20,000원



종교가 어려운 현대인을 위한
종교 감수성 입문서
‘다름과 공감하는 시선’
종교문해력 총서

01 내 안의 엑스터시를 찾아서
성해영 지음 | 272쪽 | 18,000원
03 지금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정경일 지음 | 272쪽 | 18,000원
04 이슬람교를 위한 변명
박현도 지음 | 392쪽 | 22,000원
05 소태산이 밝힌 정신개벽의 길
장진영 지음 | 336쪽 | 2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중화 법타 대종사

“‘捨教入禪’ 숙고…이정표 잘 봐야 바른 길 간다”

12면에 이어

수행이 운전이면, 교리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잘 따라야 목적지 도착해
“평소 드는 화두는 ‘What is this’
정진하면 연기적 세계 깨닫게 돼”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은해사 조실인 중화 법타 대종사가 주석처인 거조사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1994년 7월 10일 연행된 법타 스님은 남영동에서 조사를 받았다. 스님이 조사를 받은 방은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로 숨진 곳이었다. 스님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찬양·고무 등 죄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출가자가 찬양하고 고무할 대상이 부처님, 보살님, 조사님들밖에 더 있겠어요? 남영동에서 고초를 겪은 뒤 저는 안양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는 구치소를 수행처(修行處)라고 여기고 매일 지장기도를 올렸고 105일 뒤 풀려났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법타 스님은 평불협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100여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1997년 사리원에 금강국수 공장을, 2006년 평양에 금강산빵공장을 설립했다. 금강국수 공장에서는 하루 7700명분의 국수가 생산됐다. 평불협의 대북지원금액은 50여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교역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마저 단절됨에 따라 국수 공장과 빵공장의 운행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법타 스님은 북한이탈주민 돕기에 매진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북한이탈주민 돕기 운동을, 진보진영은 북한주민 돕기 운동을 펼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수도 진보도 아우르는 것입니다. 불법(佛法)은 모든 국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3만50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조차 돕지 못하는 마당에 어떻게 2500여만 명의 북한주민을 돕겠습니까?”

법타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 재임 기간 중 ‘남순지장회(南順地藏會)’를 설립해 동국대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남순지장회는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지장보살의 가피를 내리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지성호 국회의원도 남순지장회 소속 회원이다. 남순지장회 회원인 이위력 씨는 신혼 초 폐암에 걸려서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법타 스님은 이위력 씨를 돕기 위해 7000여만 원을 모금해 전달하기도 했다.

“병고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엔 핵 위협이 없고 북한엔 기아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법타 스님의 희망이다.

애국, 애족, 애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법타 스님은 군위 인각사에서 보각(普覺) 국사 일연(一然) 스님의 추모다례재 봉행을 정례화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일연 스님에 대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분”이라고 평가했다.

“13세기에 고려 국민들은 몽골군과의 전쟁이라는 국난(國難)에 시달리고 난 뒤 속국의 국치(國恥)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전쟁의 상흔뿐인 상황에서 국사에 책봉된 일연 스님은 무엇으로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에서 일어나라’는 말대로 일연 스님은 민족의 과거사라는 뿌리에서 민족의 미래사라는 줄기를 뻗게 하려고 〈삼국유사〉를 썼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설화부터 구전돼 내려오는 우리민족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5000년간 내려온 불보살님들과 조사님들과 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삼국유사〉가 없는 한국사와 불교사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얼을 일깨워준 만큼 일연 스님의 추모다례재는 정부나 종단 주도로 승격해서 봉행돼야 한다는 게 법타 스님의 생각이다.

법타 스님은 왕성한 사회활동에도 불구하고 36안거를 성만한 구참(久參) 수좌이다. 법타 스님이 안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선방에 드는 이유는 법(法)은사인 일타(日陀)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이 입적하자 일타 스님에게 건당해 법상좌가 되었다.

법타 스님은 일타 스님에게서 포은(包隱)과 중화(中和)라는 두 개의 법호를 받기도 했다. 포은은 ‘은현자재(隱顯自在) 시명포은(是名包隱)’에서 따온 법호로서 불법의 정수를 은밀하게 지니고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드러내라는 의미이다. 정도(正道)에 어긋남 없이 사회화합에 앞장서라는 의미의 중화는 일타 스님이 법상좌가 사회활동가임을 염두하고 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타 스님은 법타 스님에게 수시로 수행을 강조했다. 심지어 법타 스님이 수감 중일 때도 편지를 보내서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은사스님께서 12쪽의 서간(書簡)을 보내셨습니다. 서간 내용인즉슨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가가 너에게 수행의 기회를 줬다. 그곳을 국립 선방으로 여기고 나올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소한 뒤에도 법타 스님은 안거철이 되면 선원에서 들어가 ‘이뭣고’를 화두로 삼아 용맹정진해오고 있다.

“제 화두는 ‘What is this(이것은 무엇입니까)’입니다. 욕망의 굴레에서 살아가다 보니 세간의 화두는 ‘How to live(어떻게 살아야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탐, 진, 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론적 자문을 하게 됩니다. 수행자라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구하고 그 해답을 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What is this’라는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나라는 소아적(小我的) 존재가 아니라 연기법의 우주라는 대아적(大我的)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 법타 스님은 “간화선의 전통이 올곧게 계승되고 있는 곳은 한국불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화선(看話禪) 내지는 화두선(話頭禪) 수행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는 간화선 수행 전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종선의 선풍(禪風)을 드날린 육조 혜능 대사를 기리고 있는 육조사의 스님들도 염불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불교에는 안거 결제(結制) 때마다 수천여 명의 수좌들이 선원으로 몰려드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좌들이 화두 타파를 위해 용맹정진한다는 점에서 한국불교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수좌들은 물론이고 불자들도 사교입선(捨教入禪)의 이치를 숙고해야 합니다. 사교입선이란 일정한 교리 연구를 마치고 나면 선 수행에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 수행에 앞서 일정한 교리 연구를 마쳐야 한다는 선행조건입니다. 수행을 운전에 비유하면 교리는 내비게이션 내지는 이정표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말도 듣지 않고 도로의 이정표도 보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 아닌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뒤 필자는 다시 한 번 경내 영산전에 가서 526위의 나한상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즐거운 듯 살포시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나한, 뭔가 기쁜 듯 환히 웃고 있는 나한, 뭔가 아쉬운 듯 멍한 표정의 나한, 뭔가 슬픈 듯 수심이 깊은 표정의 나한…. 나한들은 모두 친근하다 못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게 했다. 어디서 봤을까? 나한들은 반만년의 숨결이 깃든 우리 민족의 얼굴일 것이다. 그리고 번뇌 속에 사는 중생들을 해탈의 세계로 인도한 불보살님들과 조사님들의 얼굴이기도 할 것이다.

유응오 / 작가

5년 간 안양시 시민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행복한 부모되기

마음 치유와 자녀 심리 이해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교육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선착순 35명)

기 간 : 5월 2일 ~ 6월 20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선원 경내 한마음과학원 3층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문 의 : 031-470-3200, 3198 매주 월요일 휴무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hansi.org)에서 신청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⑧ 안성 칠장사



▶한줄 요약
참으로 칠장사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절이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삶을 함께한 사찰이기 때문이리라.

일곱 도적이 나한된 신묘한 도량

혜소 국사의 남다른 도력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극락마을을 지나면 칠현산 기슭에 자리한 칠장사(七長寺)가 있다. 칠장사는 선덕여왕 5년(636) 자장 스님(590?~658?)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지만, 불분명하다. 본격적인 역사는 고려 초 혜소 국사(972~1054)가 머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폐사와 중창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경내에는 대웅전, 원통전, 명부전, 나한전, 사천왕문, 혜소국사비, 철당간(철로 된 깃대), 봉업사지석불입상 등 지정문화재가 있다.

칠장사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궁예가 10세까지 활쏘기하며 유년기를 보냈다는 활터, 나옹 스님이 심은 나옹송, 왜군 적장이 내리친 칼의 흔적이 있는 혜소국사비, 임꺽정이 스승 병해 대사를 위해 조성한 꺽정불, 암행어사 박문수의 과거시험에 도움을 준 나한 등에 관련한 이야기다.

그 이야기 중에 백미는 일곱 도적이 나한이 된 사연이다.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로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깨달음을 얻은 이를 말한다. 보통 나한전에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등을 모신다. 그런데 칠장사 나한전에는 일곱 분의 나한을 모신다. 더욱이 이분들은 부처님 당시의 제자가 아니라 칠장사에서 성인이 된, 한때 이 땅의 도적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고려 제9대 덕종의 왕사였던 혜소 국사(972~1054)가 칠장사에 부임할 무렵, 인근에 일곱 명의 도적이 있었다. 새로 오신 스님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염려되어 한 사람씩 절 사정을 알아보고자 왔다. 때마침 도적은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다. 그곳에는 금으로 된 물바가지가 있었다. 도적은 물을 마시고는 금 바가지를 몰래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신만의 비밀장소에 숨겨두었다. 다른 도적들도 각각 절에 왔다가 금 바가지를 보고 가지고 돌아와 자신만의 비밀장소에 숨겨두었다. 이들은 각각 다시 절 우물가에 가보았다. 자신이 가져갔는데도 그곳에는 또 금 바가지가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비밀장소에 가보니 자신이 가져다 둔 금 바가지가 보이지 않았다. 한 도적이 이 사실을 다른 도적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다른 도적들도 똑같은 사실을 실토하였다. 혜소 국사가 신통을 부린 것이다. 도적들은 혜소 국사의 도력에 두려움을 느꼈다. 곧 스님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도를 이루었다. 그 뒤 혜소 국사가 열반하자 이들은 사람 형상을 한 일곱 개의 돌만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이때부터 산 이름을 칠현산(七賢山), 절 이름을 칠장사(七長寺)라 하였다. 이전에는 아미산(蛾嵋山) 칠장사(漆長寺)였다.



혜소 국사와 일곱 도적을 그린 벽화. 도적들은 혜소 국사의 도력에 놀라 불가에 귀의해 나한으로 거듭났다.

유년기 궁예의 활쏘기 장소이자
나옹 스님 · 임꺽정 설화도 가득
폐사 · 중창 거듭하며 시간 흘러
나라와 백성의 삶 모두 담고 있어

지금 나한전에 모신 나한은 이전에는 경내 노천에 있었다. 1703년 법당을 마련하였다. 한평 정도로 작았지만, 좀 더 많은 이가 기도할 수 있게끔 법당 앞마당으로 기도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 나한전을 새롭게 조성하여 지금은 다소 넓은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박문수, 나한 가피로 장원급제

칠장사 나한전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공양물이 올려져 있다. 바로 유과다. 이 유과에는 암행어사 박문수의 사연이 있다.

박문수(1691~1756)는 32세가 되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어느 해 박문수가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서는 날 아침, 어머니는 박문수에게 유과 보따리를 주며 당부하였다. "꼭 가는 길에 칠장사 나한전에 유과를 공양하고 기도를 드려라." 어머니 말씀대로 박문수는 칠장사에 들러 나한전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그런데 그날 꿈에 칠장사 나한이 나타났다. 나한은 이번 과거시험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여덟 줄 중 일곱 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알아서 쓰라고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박문수의 뇌리에는 그 게송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 박문수는 깜짝 놀랐다. 꿈속에서 나한이 가르쳐준 게송이 바로 과거시험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꿈속의 글을 기억하고 있던 박문수는 일곱 줄을 그대로 쓰고 나머지 한 줄은 본인이 덧붙여 제출하였다. 결과는 장원급제. 박문수가 써 내려간 시를 '꿈속에 나타난, 과거에 오른 시'라는 뜻에서 '몽중등과시(夢中登科詩)'라 한다. 문헌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시는 이렇다.



칠장사 사천왕. 검은 눈자위에 흰 고리가 둘러싼 눈동자가 인상적이다.

落照吐紅掛碧山(낙조토홍괘벽산) 낙조가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려있고
寒鴉尺盡白雲間(한아척진백운간) 까마귀는 흰 구름 자 모습을 그리며 날아가네.
問津驟客鞭應急(문진나객편응급) 나루터 묻는 나귀 탄 나그네의 채찍은 다급해지고
尋寺歸僧杖不閒(심사귀승장불한) 절로 찾아 돌아가는 스님의 지팡이는 한가롭지 않네.
放牧園中牛帶影(방목원중우대영) 방목하는 목장에는 소가 그림자를 두르고 있고
望夫臺上妾低鬟(망부대상첩저환) 망부대 위 아낙네의 쪽이 뒤로 젖혀지네.
蒼煙古木溪南里(창연고목계남리) 푸른 연기 고목 사이로 피어오르는 시내 남쪽 마을에
短髮樵童弄笛還(단발초동농적환) 짧은 머리 나무꾼 아이가 풀피리를 불며 돌아오네.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칠장사 나한전은 각종 시험과 관련된 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칠장사 나한전을 가실 때는 꼭 유과를 잊지 마시길.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박문수가 올린 유과는 찹쌀유과로 한과인데, 대부분 유과사탕을 올린다. 또는 초코파이를 올리는 분도 있다. 무엇이면 어떻겠는가. 정성으로 기도하면 될 일이다. 유구필응(有求必應),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응한다. 혹시 유과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시라. 일주문 앞 가게에는 유과사탕이 준비되어 있다.

칠장사는 이러한 박문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매년 10월에 '칠장사 어사 박문수 백일장'을 연다. 그리고 올해 3월 30일 '칠장사 비전 박문수체험관'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슬픈 눈의 사천왕

칠장사에는 오늘날에 더해진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 최명희의 대하예술소설 〈혼불〉 제9권에 묘사된 칠장사 사천왕 이야기다. 작가는 사천왕 중에서 가장 슬픈 얼굴은 경기도 칠장사 사천왕 존안이라 한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한번 눈빛이 깊이 남아 잊히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작가는 사천왕상의 눈동자에 주목하였다. 아무리 부리부리 부릅뜬 사천왕의 눈이라도 흰자위에 검은 동자의 모습인데, 칠장사의 사천왕 눈은 거꾸로 새까만 눈자위에 흰 고리눈이다. 흰자위가 아니라 검은 눈자위다. 작가는 검은 눈자위는 신비롭고 무궁한 우주의 광막한 어둠 같기도 하고, 반면에 무명의 깊은 바다 같기도 하다고 느꼈다. 그러한 눈동자는 말 못 할 고통과 비애를 다 빨아들이고도 남는다고 보았다. 이는 '내, 다 안다…. 내, 다 안다….'는 중생의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보통 우리의 눈은 흰자위에 검은 눈동자다. 그런데 칠장사 사천왕 눈은 검은 눈자위에 흰 고리가 둘러싼 검은 눈동자다. 작가는 그 눈에서 슬픔을 읽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생의 슬픔이자, 가엾은 중생을 위해 사천왕으로 나타난 불보살의 연민이다. '내, 다 안다…. 내, 다 안다….' 얼마나 따뜻하고 눈물 나는 말인가.

작가는 왜 슬픔으로 읽었을까. 칠장사의 역사와 관계되지 않을까. 벽초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꺽정〉에서 칠장사는 스승 병해 대사(갖바치 스님)를 만나 이봉학 등과 의형제를 맺은 장소다. 현재 칠장사에는 그 흔적들이 있다. 극락전에는 임꺽정이 모셨다고 하는 꺽정불이 있고, 명부전 벽면에는 임꺽정과 그의 의형제 그림이 근래 그려져 있다. 이처럼 그들의 역사가 남아 칠장사 사천왕의 눈이 슬프게 느껴진 것은 아닐까. 궁예 역시 칠장사와 인연이 있어서 벽면에 그려져 있다. 그의 삶 역시 우리 역사와 더불어 순탄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칠장사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절이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삶을 함께한 사찰이기 때문이리라.

〈불교학자〉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1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0호 | 15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 (방 3개)
- 가액 : 2억 8천만원 (절충 가능)
-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 무속인 비구니 대환영

010-5022-218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
- 대지 : 약 300평 가량
-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됨
- 법회 즉시 가능함
- 가액 1억 6천

010-5581-3081

포교원(급)임대

- 위 치 : 서울 강남 도곡동
- 건물 5층 30평
- 법당 삼존불 후불탱화 불단 신중 영단 등 최고사양 완비 불구 600만원 상당
- 가액 보증금 2000만원/80만원

010-9267-2556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 계획관리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연못, 잔디광장, 요사채 3동, 다도실, 리라이트
- 광석찜질방,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들 치료 완비
- 같이 사찰 운영한 보살이나 도반 스님, 매매나 전세
- 가격 상담 후 결정

010-7151-854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옆 (시내버스 하차하면 5분거리)
- 대지 : 100평(비봉산 자락)
- 법당 : 27평(삼존불, 신중, 칠성, 영단) 정남향
- 요사채(공양간 포함) 45평(화장실 3개)
- 가액: 3억 7천(시중은행 1억 5백 담보대출 20년 상환)

010-5229-844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가액 : 1억 5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산신 · 용왕 · 영가단
- 방1 · 화장실 ·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 가액 : 6억 9천

010-5519-7711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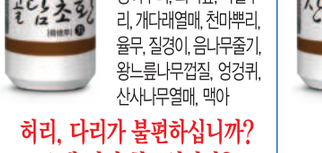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 합포구 교방동
- 임대 : 보증금 40만원 / 월세 15만원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 방3개, 화장실 등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132-9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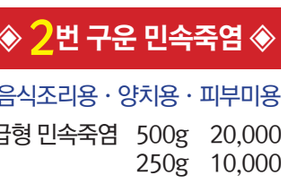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80호 | 16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 (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한국빙의퇴마 기 치료연구소

지장대사 원력 단 한번으로 조상 천도
빙의퇴마 · 천병 · 신병 · 우울증 · 불명증 · 가정우환
병명 없이 몸이 아픈 분 상담 환영

010-5152-1222 (정례)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 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 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구룡사
• 주 지 : 덕산 스님 (속명: 조한제)
• 주 소 : 경남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50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헌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누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⑧ 다구의 변화

시대 변화 따라 다구도 함께 변모했다

다사(茶事)에 사용되는 도구를 다구(茶具)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다사'란 찻잎을 따고(采茶) 차를 만드는 것(製茶)에서부터 차를 보관(藏茶)하고, 차를 내어 마시는 행다(行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뜻한다. 따라서 다구는 제다(製茶)와 탕법(湯法),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인식 등 시대별 다사의 흐름에 따라 그 범위와 종류가 달랐다.

가장 먼저 다사를 집대성해 차에 대한 모든 기준을 세운 당대의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다구와 다기(茶器)를 각각의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육우가 정의한 '다구'는 차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기물이다. 그는 채다 할 때 갓 따낸 찻잎을 넣어두는 광주리, 찻잎을 쪄서 익히기 위한 솥과 시루, 쪄낸 찻잎을 빻아 모양을 내는 데 쓰이는 절구와 모양 틀, 모양 낸 차 덩이를 말리고 보관하는 시렁과 저장고 등을 다구로 분류했다. 이는 육우가 제창한 덩이차(餠茶)의 제다 과정에 필요한 기물이기도 하다.

반면 차를 끓여 마시는 행다의 과정에 쓰이는 것들은 '다기'라 하여 물을 끓이기 위한 화로와 솥, 숯바구니, 차를 가루내고 곱게 내리는 다연(茶碾)과 체(茶羅), 차 덩이를 집거나 찻 가루를 휘저어 거품을 내는 데 사용하는 집게와 젓가락, 찻 가루나 탕수를 뜨는 용도의 수저와 국자, 물과 소금을 담는 그릇 등 다양한 도구와 기물을 나열했다. 이는 덩이차를 마시기 위한 자다법(煮茶法)에 활용되는 재료나 기물의 구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당대 육우는 다구의 범위를 다사 전반에 걸쳐 넓게 다루면서도 제다와 행다(行茶)의 과정을 구분하여 덩이차의 제다와 그것의 탕법인 자다법에 필요한 도구를 정리했다.

덩이차의 시기를 지나 단차(團茶)가 유행한 송대에 이르면 '다구'의 범위가 당대에 비해 축소된다. 북송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徽宗)의 〈대관다론(大觀茶論)〉과 남송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에는 완성된 단차를 말리고 보관하는 기물을 비롯하여, 침추(砧椎)와 다연, 다마(茶磨)와 같이 단차를 가루내기 위한 분쇄 도구, 물을 끓일 탕병(湯甁), 차 거품을 내는 격불(擊拂)용 다시(茶匙)와 다선(茶筅), 다완 등 단차의 점다 과정에 쓰이는 기물의 종류가 다구로서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송대에는 풍성하고 밀도 높은 거품을 피워내는 것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다. 때문에 다시, 다선과 같은 격불 도구뿐만 아니라 차를 더욱 곱게 가루내기 위한 다양한 분쇄 도구가 새로 등장하고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다연은 약재를 분쇄하는 약연(藥硏)과 유사한 형태로 자다법, 점다법에 모두 사용됐다. 침추는 차 덩이를 다연에 갈기 전에 1차로 부숴주는 도구로서 단차를 넣고 막대(공이)의 머리를 금속 망치로 내리쳐 차를 쪼갠다. 다마는 이름 그대로 차를 가루 내는 전용 맷돌이다.



송대 심안노인의 다구도찬도

宋代, 격불 · 분쇄 도구 중요하게 부각
명 · 청대엔 솥이나 다관 중요성이 커져
음용 방식에 따라 다구도 함께 변화해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송대부터는 채다를 포함한 제다의 과정에 사용되는 기물이 다구의 범위에서 빠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다'와 '행다'의 공정은 각기 세밀하고 정교하게 발전했는데, 이에 따라 이 두 과정을 포괄하던 다구의 개념이 '행다'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겨루는 품다(品茶)와 투다(鬪茶) 문화가 발달하면서 행다의 과정에서 차의 색, 향, 미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됐고 이에 적합한 다구의 사용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반면 명·청대에는 채다한 잎을 그대로 말리고 덖어서 만든 산차(散茶)가 유행했다. 산차의 음용방식인 포다법(泡茶法)은 끓인 물을 다관(茶罐)에 부어서 찻잎을 우려낸 뒤 찻잔에 따라 마시기 때문에 찻잎을 잘 우려내는 것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다. 전대에 비해 행다의 절차나 다구의 구성은 간소해졌지만, 물로써 차의 향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물을 끓이는 최적의 온도'와 '차가 잘 우러나는 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뤄졌다.

이에 명·청대에는 물을 끓이는 솥이나 탕관(湯罐), 그리고 끓인 물을 담아 찻잎을 우려내는 다관(茶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차를 우리기에 가장 적절한 다관으로 부상한 것은 의흥(宜興) 지방에서 생산된 자사호(紫砂壺)였다. 미세하고 부드러운 니질(泥質)의 자사(紫砂)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용이하여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이 생산됐는데, 청대로 갈수록 차의 맛과 향이 흩어지지 않도록 작은 크기를 선호했다.

차는 오랜 세월 널리 사랑 받아온 음료이지만 시대마다 그것을 제다(製茶)하는 방식이나 음용방식은 조금씩 달라져 왔다. 이러한 변화와 차이는 시대별 다구에도 반영이 됐다. 제다 방식의 변화로 차의 종류가 바뀌면 그 차를 행다(行茶)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구의 종류와 구성, 쓰임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다구들은 그 시대의 다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거나 새로이 개발됐다.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바르게 정화하는 정신음료라는 차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럼에도 차의 제다에서부터 그것을 음용방식과 이를 위한 다구들이 계속해서 변모해온 까닭은, 아마도 차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그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⑯

1. 다음 중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삼보(三寶)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불보, 법보, 승보
② 경장, 율장, 논장
③ 계율, 선정, 지혜
④ 불상, 법고, 범종
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해설 : 삼보는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세 가지 보물을 일컫는 말로, 불보(부처님), 법보(가르침), 승보(승가,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처님의 전도선언으로 틀린 것은?
①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떠날 것
②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법을 전할 것
③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줄 것
④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할 것
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할 것

해설 :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3.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a)와/과 (b)을/를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마라.

① a : 행복 - b : 극락
② a : 이익 - b : 안락
③ a : 열반 - b : 해탈
④ a : 이익 - b : 깨달음
⑤ a : 평화 - b : 사랑

해설 :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

4. 문제 4의 지문에서 표현된 내용을 무엇이라 하는지 알맞은 제목을 고르면?
① 행복선언 ② 평화선언 ③ 안락선언 ④ 전도선언 ⑤ 자비선언

해설 : 비구들이 떠나야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5. 부처님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설법했을 때, 그 타고 있는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탐욕의 불
② 분노의 불
③ 고뇌의 불
④ 승리의 불
⑤ 어리석음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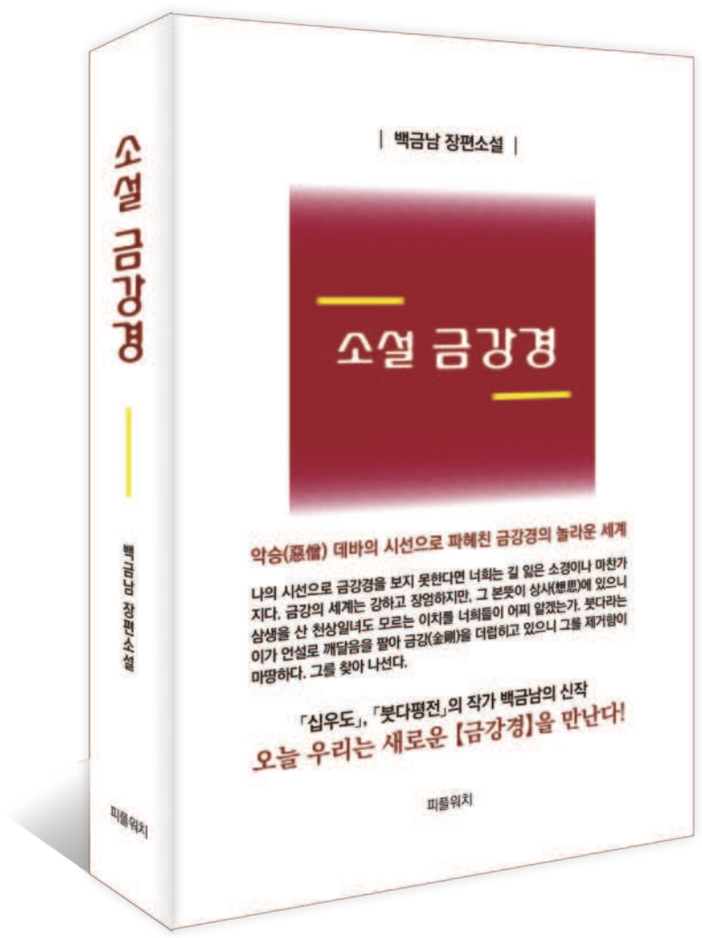
해설 : 가야산에서 불을 신성시하던 가섭 삼형제에게 부처님께선 불을 고통의 성격(탐욕, 분노, 고뇌, 어리석음)으로 비유하시어 그들이 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6.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이자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제자이다.
② 수보리는 해공(解空) 제일이며,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이다.
③ 두타제일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한 가섭 존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④ 데바닷다는 부처님 열반 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 제일이라 한다.

해설 :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대악인으로 부처님을 해하고 자신이 불교교단을 통치하려 하였다. 부처님의 생전에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

정답 : 1. ① 2. ① 3. ② 4. ④ 5. ④ 6.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소설 금강경

깨달음을 비우고 벼락처럼 깨침을 얻는다!

「십우도」, 「붓다평전」의 작가 백금남의 신작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강경】을 만난다!

악승(惡僧) 데바의 시선으로 파헤친 금강경의 놀라운 세계

나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 잃은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금강의 세계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그 본뜻이 상사(想思)에 있으니 삼생을 산 천상일녀도 모르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는가. 붓다라는 이가 언설로 깨달음을 팔아 금강(金剛)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를 제거함이 마땅하다. 그를 찾아 나선다.

저자 백금남 | 값 18,000원

피플워치 02-352-3861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 탄허 큰스님 이야기 -



백금남 지음

신국판 533쪽 | 피플워치 | 값 26,000원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종명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갈 해, 갈 날, 갈 시'까지 예언하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의 질곡마다 해왔던 예언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월악산에 달이 떠오르고, 젊은 지도자는 성냥갑 놀이를 할 터인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리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혼돈의 시대, 당위의 미래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화엄승의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기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❼ 서준 스님의 배 국수



▶한줄 요약
동의보감에 배는 '독이 없고, 풍과 열을 없애고 가슴속에 열이 뭉친 것을 풀어 준다'고 전해진다. 들깨 또한 기침을 멈추고 산후조리에도 깊이 쓰일 만큼 원기회복에 좋으니 비록 소박한 국수지만 그 정성과 영양가는 여는 보양식 못지않은 셈이다.

수북히 간 배 위에 들기름 살짝~ 운문사 대중 향한 응원까지 담다



운문사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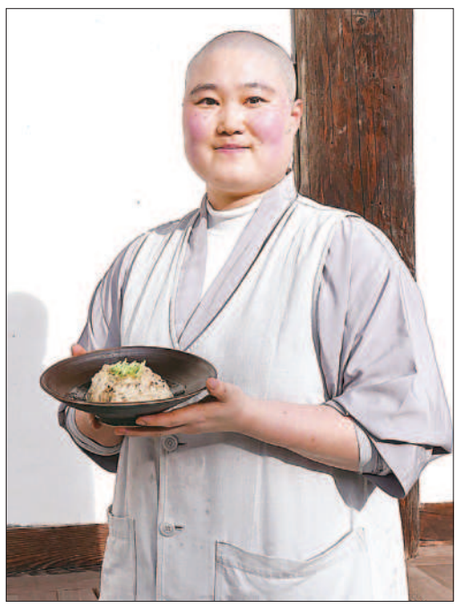
전국 어디든 1일 생활권역에 들어섰다는 요즘, 하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과 속도전 같은 것이야 그저 무심히 흘려보내는 곳이 있다. 운문사로 향하는 여정이 그렇다.

울산터미널에서 운문사가 있는 청도행 버스는 하루 서너 번. 기다리던 시외버스에 몸을 실으면 외곽도로를 신나게 달리던 버스가 일순 자세를 낮춘다. 굽이굽이 휘어진 위태로운 산길의 태세에 따라 버스도 사람도 하심(下心)으로 달려가는 길.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새 버스는 가쁜 숨을 내쉬고, 종점인 운문사 정류장의 도착을 알리는 것이다.

연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참배객들의 수가 적은 사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운문사에는 어떤 결계가 쳐진 듯한 신비감이 있다.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이 물리적 거리가 분명 그 신비를 지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운문사를 '찾아내었을 때' 누구라도 길고 고된 여정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무엇도 찾을 수 없는 이곳. 맑은 공기와 눈 닿는 곳 어디든 청정한 산세, 여행자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춤추는 운문천의 청량한 물소리. 고요한 숲길의 시간은 마치 진공상태에 들어선 기분마저 들게 한다.

이윽고 운문사를 둘러싼 나지막한 돌담길, 그 끝에 다다를 즈음 드디어 담박한 자태의 출입문이 하나 보인다. 천왕문이나 일주문 대신, 승과 속의 경계 역할을 대신하는 운문사 범종루다. 호거산이 감추고, 내내 지켜온 보물 같은 천년고찰, 운문사로 들어서는 입구다.



운문사 원주 서준 스님은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는지 고민해 비슷한 맛을 내보려 흉내도 낸다"고 말했다.

서준 스님의 배 국수 만들기

재료 국수, 배, 간장, 들기름, 고추냉이, 깨소금, 물.

만드는 법
1. 큰 배 1개를 강판에 갈아준다.
2. 간장과 물을 1:0.5 비율로 섞어준다.
3. 삶은 국수를 찬물에 깨끗이 씻어준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4. 국수에 소량의 맑은 물을 넣어준 뒤 간 배를 먼저 넣어 섞어주고, 다시 2번의 양념을 넣어 섞어준 뒤, 간을 보아가며 취향껏 고추냉이를 넣어준다.
5.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두르고 깨소금을 뿌려준다.

운문사 공양간을 찾아서

이른 오전 시간, 운문사를 방문하면 매일 도량 곳곳을 정비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운문사 승가대학의 학인스님들이다. 쓸고, 닦고, 먼지를 털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인 운력은 노동이자 수행의 연장. 자리한 모든 것이 여법한 이곳에 운문사스님들의 일상은 그 자체로 운문사를 지키는 상징이나 다름없다.

지나는 관광객들마저 '땅바닥에 빗자루 지나간 흔적도 예사롭지 않다'라고 심심찮은 감탄사를 내고 마는 이곳. 티끌 하나 쉬이 보이지 않는 법당과 반질거리는 마룻바닥.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길가의 돌멩이 하나조차 약속한 곳에 자리한 것처럼 단정하다.

운문사를 밝히는 것이 어디 그뿐이랴. 한 걸음 발 딛는 순간 경건함에 젖어 드는 운문사 대웅보전의 아름다움, 눈이 시릴 만큼 푸르른 만세루의 단청, 오래된 전각과 그 앞을 밝히는 석등 하나조차도 보물 아닌 곳 없는 도량. 하지만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한국 비구니 승가의 큰 축을 이루는 이 도량, 그 너머에 자리한 '작은 신전'을 찾기 위함이다. 미래의 부처님들을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맛있는 의식을 치르는 아름답고, 치열한 수행의 공간. 바로 운문사 공양간이다.

반전의 감칠맛 '배 국수'

산사의 공양간을 담당하는 소임은 특히 살림이 야무지고, 손맛이 남다른 스님이 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절집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책임지는 소임이 그만큼 쉽지 않은 터다.

반짝이는 눈빛과 아직도 앳되어 보이는 맑고 뽀얀 얼굴. 운문사 원주 서준 스님의 얼굴에는 아직도 아이 같은 미소가 떠오르는데, 동과 서로 번쩍번쩍 공양간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에선 역시 숨길 수 없는 강단과 내공이 드러난다.

"오늘 점심은 운문사 스님들이 좋아하시는 배 국수를 준비했어요. 저도 참 좋아하고요. 여러 재료가 들어가지만 저는 그냥 배 국수라고 불러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배인데,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료는 간단해요. 배를 갈아서 우선 단맛을 내지요. 그리고 들기름과 간장만. 스님들은 음식에 기름기가 많으면 속이 부대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 들기름은 일반 국수보다 훨씬 적게 넣고, 대신 고추냉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느끼함이 잡히니까요."

배가 주재료인 만큼 깨끗하고, 잘 익은 것을 골라 아낌없이 넣는다. 수북하게 쌓인 배를 강판에 갈고 보니, 김장할 때 쓰일법한 커다란 스텐 볼에 과육이 훌쩍 찬다. 커다란 솥에 막대기로 휘휘 저어가며 익힌 면은 냉수에 잘 씻어두고, 물기가 빠지면 갈아놓은 배와 양념을 적절히 넣어가며 힘껏 비벼주어야 한다. 들기름과 간장, 고추냉이 양념은 배의 양보다 훨씬 적은 것이 특징이다. 국수는 불지 않고, 찰기가 있도록 공양 시간 직전에 만든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 오늘 점심 운문사 공양간에는 향긋한 배 국수가 스님들을 기다릴 것이다.

마음이 만드는 레시피

국수를 입에 넣은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칠맛이 입안에서 터져 올랐다. 향긋하고 시원한 감칠맛, 또 배의 은은한 단맛이 들기름과 섞이니 마치 고급 버터와 같은 풍미를 내는 것이다. 유제품의 맛에서 느껴지는 고소함이 산사의 국수에서 느껴지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별다른 계량 없이 서준 스님의 손맛에 따라 탄생한 만큼, 그 양념의 정도가 맛을 좌우하는 비밀일 것이다. 마침 서준 스님이 "배 국수는 묵은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어요"하며 조용히 김치를 밀어주신다.

"다른 국수도 그렇지만, 배 국수는 계절마다 쓰임이 많아요. 선방이 있다 보니 겨울에는 감기가 쉽게 옮습니다. 기침, 열 많이 오르실 때는 일부러 만들지요. 또 겨울에는 영양가를 더하려고 들기름을 더 넉넉하게 넣습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그게 속이 편하다고 하셔요."

동의보감에 배는 '독이 없고, 풍과 열을 없애고 가슴속에 열이 뭉친 것을 풀어 준다'고 전해진다. 들깨 또한 기침을 멈추고, 산후조리에도 깊이 쓰일 만큼 원기회복에 좋으니 비록 소박한 국수지만 그 정성과 영양가는 여느 보양식 못지않은 셈이다.

한 그릇 공양에 응원을 담아

"저도, 별좌스님과 후원의 보살님들도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스님들에게 해줄 수 있는지 늘 함께 찾아보지요. 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최대한 비슷한 맛을 내보려 흉내도 내보고요(웃음)."

승과 속의 세계가 나뉘어 있다 해도, 조금이나마 다양한 맛을 산사의 밥상에 담으려는 것. 그 마음은 이 순간 운문사에 머무는 모든 스님을 향한 응원과 다름없다. 마침 전날은 새로운 학인스님들의 입학식이 있었던 날. 서준 스님은 내내 스님들의 공양을 챙기고,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공양을 챙겼다.

"한동안은 속가에서 먹던 음식이 그립지 않을까요. 피곤하고 지치면 자극적인 게 먹고 싶으니까요. 모두의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항상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따뜻한 음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모두 힘내기를 늘 응원하고 있어요."

공양 준비로 분주했던 서준 스님의 얼굴도, 응원을 전하던 눈가도 어느새 벚꽃 빛으로 물이 든다. 하루가 저물고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간 시간, 서준 스님은 매번 홀로 법당을 찾아 공양 준비로 인해 미처 참석하지 못한 예불을 올린다. 그런 스님의 곧은 뒷모습도, 깊은 밤 쉬이 잠들지 못하는 학인스님들의 맑은 눈동자도 별처럼 반짝이는 계절. 이 봄의 '운문서정(雲門敍情)'이 저 큰 산을 채운다.

〈작가〉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등 설치 할 인 설치 스카이 5월 15일까지 할인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만월등 사업등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연잎 리본
● 각종 미니 만월등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100개 ····· 140,000원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480 호 현대불교
2024년 4월 17일(음 3월 9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자리가 이 법당 한자리지만 이 한자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한자리인 것입니다. 한자리란 그렇게 가벼운 한자리가 아닙니다. 한생각도 가벼운 한생각이 아닙니다.

역대로 내려오면서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 그 진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들한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해서 지금까지, 아니 후대에까지 영원토록 이어지고, 우리가 그 진리를 주춧돌 삼고 또는 거름을 삼아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법을 같이 나눌 수 있으니 이 자리가 바로 한도량입니다. 대의적으로 따진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여래의 집이면서도 여러분 각자 한 몸 자체가 바로 법당인 줄 아셔야 합니다.

참선이란 명상도 아니고 좌선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한생각에 내공의 모든 것을, 일체 만법에 대한 모든 생활을 자기가 한 발 한 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자기라는 착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에 대한 착, 또는 육근에 관한 착의 문제가 붙습니다.

사람이 아상만 뗀다면 착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했는데 어찌 모든 것을 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내 아상과 집착과 삼독을 빼 버린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이 공존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림 · 최주현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게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을 해야만 하는, 억지로라도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나무로 비유를 가끔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 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저께 일을 알고 있고 작년 일을 알고 있고, 어디서 구경을 하고 왔으면 집에 와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와 같이 깨달은 사람들은 역시 앞 부처, 뒤 부처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모두가 자비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마음의 자기 내공에, 즉 말하자면 생명선 그 자체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 보신과 화신 또는 법신 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로부터 이 육신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다 갖추어서 있다는 것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물 부처가 따로 있고 불 부처가 따로 있고 흙 부처가 따로 있고 바람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문수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부처님들의 이름 자체가 부처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찰나찰나 움죽거리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부처님인 것이고 나중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는 데까지 도달해야만이 살아서 열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 있으면서 열반을 해야지 죽어서 열반을 한다면 그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기에 죽어서 열반을 한다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열 가지 물감 빛깔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감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도리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장하기를,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하나 삼합이 공존을 하고 있으니까, 삼세심이 공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그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일임해서 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하니까. 자기의 생명선을 못 믿는다면 말은 어떻게 하며 몸은 또 어떻게 움죽거리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 생명선, 이름해서 주인공인 참자기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유생 무생과 더불어 생활하고 돌아가는 진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망상을 끊으라는게 아니라 놓아서 돌리라는 것이다

☞ 19면에서 계속

을,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놓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돌려서 놓는 것입니다. 끊는 게 아닙니다. 망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망상이 없으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상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으라는 것입니다. 놓아서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놔라. 공했느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꼭 거기에다가, 단연코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진짜로 믿고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거든 좋은 거든 흥겨운 거든 기쁜 거든,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간 법계에서 다 통과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놓으십시오.

사람이 아파서 놓는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 의사가 돼 줄 겁니다. 자기의 참자기는 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화할 수 있는 광대무변한 뜻입니다. 빛으로는 빛으로 응하고 음파로는 음파로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걸 일임해서 놓고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둔다면 바로 자기까지도 내공에 다 놔 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상을 갖지 말라. 왜? 열 가지 빛 중에 하나를 내가 내세워서 이게 빛이라고 내놓을 게 없는 도리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젊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늙어서 호했을 때를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또 남편을 만날 땐 부인으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애들을 만났을 땐 어머니로서 생각날 것이고 또는 친구를 만났을 땐 친구로서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행하는 것이 전부 고정되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찰나찰나에 한 가지도 아니고 그 여러 가지의 생활을 하는 거를 일일이 내가 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의 부처님들은 바로 '무' 했던 것입니다. 어떤 거를 내세워서 부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거를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먹는 대로 컴퓨터에서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넣는다면 무턱대고 자기는 컴퓨터의 노예가 돼서 모든 걸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행적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이 뒤바뀐 거죠? 주인이 만들어 놓고 거꾸로 하인한테 먹혀서 도리어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리를 아셔야만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내 몸을 지킬 수 있죠. 그걸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면, 이 몸이 법당이라고 한 뜻은 무어냐?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 있는데 내 마음이 대표로서 마음 한생각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정맥 동맥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소임을 맡은 그 생명체들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까?

>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안다면, 자기가 마음을 발견해서 그 뜻을 안다면 바로 컴퓨터나 영사기나 그런 데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바로 미사일에도 말리지 않을 것이고 미사일을 막기도 할 것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어느 거 하나 두렵고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도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거스르지 않고 아래로 거스르지 않는 반면에 즉석에서 자기 육신이 바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언어가 두 마디 세 마디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체가 없는 자기의 광대무변한 참자기이기에 때에 따라서는 화해서 물에 가면 물 부처가 돼버리고 바람이 불어서 다 죽게 되면 바람 부처가 될 것이고, 가난하면 관세음보살이 돼 줄 것이고, 명이 짧으면 지장보살이 돼 줄 것이고, 법에 송사가 붙었으면 판사가 돼 줄 것이고, 내가 어떠한 경찰에 연관이 돼 있으면 경찰이 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참, 광대무변하고 묘법인 것을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오히려 노예가 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폭에 지나지 않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라고 바깥에서 구하고 바깥에서 찾고 빌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시대라고 보며, 지금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가 이 땅의 주인인지, 내가 이 몸의 주인인지를 생각해야 옳을 줄로 믿습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떠한 이름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름이 불교가 아니고 이름이 가톨릭교가 아닙니다. 그 이름 따라서 바로 짝짝 갈라 가지고서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인과를 받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한데 떨어진다면 그건 법이 아니라 바로 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든지 올바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으란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고 부처를 따르랬지 누가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들어오는 대로 저 부처님과 마음으로써 둥글려서 한데 합쳐서 안에 딱 놓고서 삼배를 올린다면 그냥 천배 올린 것보다도 나을 것입니다. 바깥으로 부처님께 '나를 구원을 해 주시오.' 하고 삼천배 절을 해도 아마 한생각 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떡하면 이 도리를 알아서 유체나 유령이나 악령이나 유전이나 또는 생사 열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세균도 그렇죠. 여러분의 중심이 없다면 빈집이니깐 들어와서 모든 세포의 눈을 통하고 귀를 통하고 몸을 통해서 갖은 병, 갖은 악취스런 냄새가, 거미줄도 치고 벌레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을 때에도 벗고 싶을 때에 벗고, 입고 싶을 때에 입고 그렇게 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서없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책을 읽어서 강의할 줄을 모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뭐. 왜 팔만대장경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을까요? 그건 숫자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팔만', 팔이면 벌써 그대로 사무 사유가 돌아가는 뜻입니다. '사천'이면 벌써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 하면 벌써 하나를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경' 했거든. 팔십종호도 말씀하셨지만 '호'도 '종'이라고 했으니 '종'도 '호'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요거를 한번 자기 내공에 놓고, 의정을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어느 조실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오늘은 큰스님네들이 오시니 오만 평에다가 씨를 뿌려서 저녁에 요리를 해서 그 큰스님네들한테 맛있게 대접을 해야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오만 평에다가 오늘 씨를 뿌려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낼 수 있을는지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마디 더 부탁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이 다 놓게 되면, 생활하는 사람이 다 놓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뛰지 않으면서도 뛰는 방법이 있고, 뛰면서도 뛰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변소에 가서 똥을 눴는데 똥 눈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할 뿐입니다. 일체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앞발 떼어 놓지 않았으니깐 없는 것이고 뒷발은 떼어 놓는 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공해서 자기가 했단 말 하나도 할 수 없이 생겼습니다.

매사에 자기 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금을 수만 관을 갖다가 쌓아 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관리인입니다. 자기 주인의 관리인. 관리인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시주를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게 갈 때에 돈 갖다 주려고 간 게 아니듯이 누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물건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고 그 돈 값어치대로 물건을 사 오지요.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 갖다 줬다는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절에 와서 단돈 만원을 갖다 냈다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떠한 스님네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 값어치 가져가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갖다 놓은 것만 보였지 가져가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갖다 준 사람도 없는 것이요, 받은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이 도리를 모르신다면 기복으로만 나가서 나중에는 생사에…, 아니 부처님께서는 선 인과도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선의 인을 짓는다면 그 선과를 받게 마련이니, 악의 인과도 그렇지마는 선의 인과도 짓지 말라 했습니다. 일등 동물로서 태어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달마 대사와 양 무제가 말씀하신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이 내 내공과 더불어 같이, 삼세심을 같이 들어서 내가 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량으로 그냥 떨어져서 헛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자기 영원한 생명의 선을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주인공에 모든 것을 일임해서 놓으세요.

어떠한 건이든지 다 놓으시고 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해라 해라 해서 더 공부를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착을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일임해서 자기의 주인공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에너지와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바로 그 애한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집안에 향내가 아주 그윽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조화가 돼서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가정이 조화가 돼서 화목하게 됨으로써 돈이든 뭐든 모든 게 아마도 구족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4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⑭ 부처님은 공감하는 치유자

PTSD 말고 PTG를 기억하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외상 후 성장〉

초등학생 딸이 하루는 저녁을 먹으며 친구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 "PTG 오겠다"는 말을 했다. 자부심도 잠시, 'PTSD'를 말하려다 틀린 모습이라 스스로도 민망한지 다시 고쳐 여러 번을 반복해 발음하려 노력하는데 점점 혀가 꼬여 엉망이 되는 모습이다. 유식하게 말해보려다 망신을 당했으니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당황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힘들었을 터. 동생의 얼굴이 빨갛게 변한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딸이 한쪽 입술을 올리고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다.

"PTSD!"

"정확하게 모르면 사용을 하지 말라"는 핀잔도 덧붙이는 첫째였다. 둘째의 얼굴은 더 시무룩해졌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처럼 울상이 되어 나와 눈을 마주쳤다.

"'PTG'는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전히 입을 삐죽 내밀고 울 것 같은 표정인 둘째는 의아한 듯 눈을 껌뻑거렸다.

"PTG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마음이야. PTSD처럼 괴롭고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의 마음을 말하거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의 성장을 의미한단다."

정말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째는 금세 밝아진 표정으로 너스레를 떨며 말했다.

"난 역시 실수도 멋져."

요즘 가장 많이 알려진 심리 용어가 'PTSD'일 것이다. 'PTSD'는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약자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미한다. 신체적 혹은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 및 신체적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와 지속적인 심적 고통을 겪는 상태다. 많은 재난을 겪은 후 뉴스 혹은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마음안정을 강조하며 하는 말이 퍼져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심하게 놀랐다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외상은 아동기 때 겪는 성적 폭행이나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폭력,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해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남긴 상처다. 사건 대부분이 예상할 수 없고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외상이다. 한마디로 속수무책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감당해야 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겹다.

이에 반해 'PTG'는 생소하다. 'PTG'는 'Post Traumatic Growth'의 약자로 '외상 후 성장'이란 의미다. 외상이 피할 수 없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큰 의미를 전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다. 영화 '슈퍼맨'의 주연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리브는 승마 사고로 척추를 다쳐 온몸에 마비가 왔다. 하지만 그는 연구 기금을 모아 태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재단을 세웠다. 박애정신으로 유명한 마더 테레사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암살을 당해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하지만 괴로움을 극복하고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 평생 헌신했다. 이 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를 마주할 수 있다.

속수무책으로 겪어 생긴 트라우마
수많은 극복사례 떠올려 힘을 내자

이들의 특징은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사소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든 존재들에게 기적처럼 감사함을 느낀다. 그들의 성장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역설적이게도 가족의 죽음을, 특히 자녀를 일찍 보낸 부모는 대인관계에서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특징이 나타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수많은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눈다. 삶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변하고 넓어져 새로운 변화에 자신을 기꺼이 내준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애착 외상의 환경이었다. 하지만 중생의 아픔에 공감하며 치료하는 삶을 살았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파타차라라는 여인은 아이 둘과 남편 그리고 친정 가족을 사고로 잃었다. 코살라국의 수도 사와티의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으며 하인과 사랑에 빠져 집을 가출했다. 아이 둘을 낳지만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고 폭우 속에서 둘째를 출산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 한 명은 홍수로 불어난 강에 휩쓸려 죽고 갓난아기는 독수리가 먹이로 낚아채 갔다. 친정집도 폭우로 모두 무너졌고 부모와 형제도 죽었다. 극심한 상실의 고통에서 그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파타차라에게 다가가 말했다.

"파타차라여, 더는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너는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사람에게 왔다. 네가 당한 재난과 재앙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시작도 없는 이 존재의 순환 내내 계속 되었다. 사랑스러운 아들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네가 흘린 눈물이 4대양 바다보다 많구나."

외상 후 성장, 'PTG'의 가장 위대한 특징은 '아픈 자들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아픈 자들과 함께 울며 공감하는 치유자가 된다. 참된 자비의 치유자로 다시 재탄생해 따뜻한 손을 내미는 관세음이 된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⑧ 걷는 환경의 변화

길, 자연친화적으로 변화 중

원시적인 길

태초에 발이 있었다. 발이 있으니까, 지구에는 길이 생겼다.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은 걸어 다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에는 위험한 마차와 자동차가 사람을 위협했다. 위기를 느낀 사람들은 다시 마차와 자동차 없는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긴 둘레길, 산책길은 태초에 동물이 만든 길, '트레일(trail)'이라고 불린다. 길도 돌고 돌아 트레일에서 시작하여 다시 트레일로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다.

약 300만년 전 유인원은 나무에서 내려와 어설픈 직립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걸었다.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다니던 길 또는 계절적으로 이동하던 길을 유인원들도 이용했다. 동물의 길은 아주 좁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는 길, 트레일이었다.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던 중세까지만 해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동물이 만들어 준 트레일이 많았다.

그러다 차차 사람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비로소 사람의 길(path)이 생기기 시작했다. 중세까지만 해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길은 인간이 걷기 위해 존재했고 인간이 우선이었다.

인공적인 길

그런데 길에 말이 끄는 마차가 생기고,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생기면서부터 길의 주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됐다. 말을 이용한 마차가 거리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불과 200여 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전에 말이나 마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은 전쟁을 하는 군인뿐이었다. 유럽은 1800년대, 한반도는 조선 후기에 마차가 부자와 귀족을 위한 교통수단이 됐다.

마차를 이용한 교통과 운송이 늘어나면서 길을 걷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되었다. 마차가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점차 마차 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마찻길과 인도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제 길의 한가운데, 즉 길의 주인공이 다니는 도로 중앙이 아닌 곁으로 사람이 밀려났다. 길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마차가 되고 엔진이 생기면서 자동차로 넘어갔다. 시속 100㎞로 달리는 자동차를 피해서 시속 5㎞의 사람은 겁을 내며 움츠리고 길의 바깥으로 거리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도로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방의 작은 길들은 보도가 없는 국도나 지방도로가 많다. 여전히 그런 곳에서는 걷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자동차가 생긴 이래로 정부의 도로 정책은 자동차 소통 위주였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은 피해를 보았다.



사진출처=unsplash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단 4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쟁 중 프랑스에서 사망한 전사자 수를 넘어서게 됐다. 한국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걷는 것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다. 거리를 즐긴다는 생각을 갖기 어려웠다.

길을 아무리 만들어도 만드는 만큼 교통량은 늘어났다. 도로를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교통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다운스-톰슨 역설(Downs-Thomson paradox)은 자동차 위주의 도로 정책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도로의 증가는 세 가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다른 경로를 이용하던 운전자는 확장된 도로를 쓰기 시작하고, 이전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통행하던 사람들이 혼잡한 시간에 이동하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자동차를 타기 시작한다. 결국 도로에 나오는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면서 도로는 더 혼잡하게 된다고 하며, 이는 실제로 증명됐다. 도로는 더 이상 사람이나 자동차를 위한 길이 아니게 됐다.

다시 인간적인 길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이 보다 편하고 쾌적하게 길을 만들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국도 보행자를 위한 길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도시의 복잡하고 위험한 자동차 위주의 도로 개설에서 탈피했다. 차를 위한 길을 없애고 사람을 위한 면적이 넓혀지기 시작했다. 보행자의 종말에서 보행권의 확보가 탄생한 것이다.

광화문 거리는 중앙의 대부분을 사람들이 노닐 수 있게 만들고 대학로는 주말이면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고 사람들 위주로 운영된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북한산 둘레길, 제주도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등 오래전부터 동물과 사람이 발로 다져놓은 길을 되살리고 있다. trail(동물 길)과 path(사람 길)가 오랜 기간의 버려짐에서 벗어나 트레일 또는 걷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사람의 인생역정이 돌고 돈다는 말만큼이나 길의 역정도 돌고 돈다.

이제 길의 환경은 다시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길을 사람들은 두껍고 무거운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맨발처럼 가볍고 얇은 신발을 신고 걸으면서 자연과 동화되려고 애쓰고 있다.

〈비바미(Viva!me) 대표〉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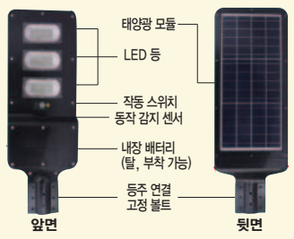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전법 일기

한 거사님의 노상방뇨 '완벽한 타인' 되짚다

2021년 여름, 부산 영도 해련사에서 탑을 쌓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귀한 경주석을 어렵게 구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본떠 만들었는데, 소실된 상륜부를 재현하여 덧붙이다 보니 탑의 높이는 10m 근처에 이르렀다. 긴 기다림 끝에 모신지라 탑만 봐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다.

그날은 탑 공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약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탑 근처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탑 주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광경은 아니었는데, 누군가 우산도 쓰지 않고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70대로 보이는 거사님 한 분이 탑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사님을 추궁했다. 절에 오신 분이 어떻게 성스러운 탑에 이럴 수가 있냐고 다그쳤다. 거사님은 당황하여 소변을 끊지 못하고 뒤돌아본 채로 웅얼거리며 뭔가 대답했지만,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았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수행자이고 스님이지만, 절을 책임지고 있는 주지로서 이런 행동에는 화를 내야 하리라. 내 목소리는 드물게 높고 거칠었다.

원주보살에게 쓴소리를 하러 종무소에 들어가니 한 보살님이 기도접수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 차 안에 혼자 기다리시니 서둘러 접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순간 이런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가 불편해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도무지 마려운 소변을 어떻게 하질 못했을 것이다. 차에서 종무소까지는 불편한 걸음으로 꽤 먼 거리였고, 마침 옆에 큰 돌기둥이 있었으니 딸을 번거롭게 할 게 아니라 몸을 숨겨 몰래 볼일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필 스님에게 그 장면을 들켰으니 부끄럽고 난감했을 터.

나는 종무소에서 나와 차 뒷좌석 창문을 노크했다. 죄인 같은 얼굴을 한 거사님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대한 것에 죄송스럽다고. 시시비비를 떠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거사님도 젖은 목소리로 사죄하고 머리를 숙였다. 탑 옆에는 미안한 얼굴뿐인 두 남자가 있었고, 이후로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내 마음 속 탑은 주지로서 잘살아왔다는 명료한 증거물이었던 것 같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탑을 받치고 있었던 것은 땅처럼 견고한 나의 애정과 집착이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했으니, 상대에게도 무언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여유와 관용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누구나 완벽한 타인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잠시 화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내와, 상대방을 이해해보려는 자비와, 작은 잘못은 용서하는 대범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재료들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롭게 탑을 쌓고 있다. 인내와 자비와 관용의 부재(部材)를 쌓아 올린 이 탑이, 훨씬 견고하고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며.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④ 동물 천도에 대한 단상

동물 천도, 생태적 삶으로 가는 지혜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가 심혈을 기울인 〈무문관〉(無門關)의 두 번째 공안은 '백장야호'(百丈野狐)이다. 뒷동산 바위굴에서 찾아낸 여우의 시체를 거두어 준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인과(因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과에 대한 불락(不落)과 불매(不昧) 사이의 거리를 확인시킨 사건이다. 다른 맥락으로 이 공안을 활용한다면, 동물천도를 통한 생태적 시각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황벽(黃蘗)으로부터 뺨을 맞은 백장(百丈)은 다음과 같은 '한번 구른 말(一轉語)'을 한다.

"달마의 수염은 붉다(胡鬚赤)고 말하려 했더니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가 여기에 있구나!" (胡鬚赤更有赤鬚胡)

'달마의 수염은 붉다(胡鬚赤)'는 말을 뒤바꾸어버린 일전어(一轉語)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는 담론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철학적 질문은 존재론에서 실존으로 일전한 후, 타자(他者) 담론으로 변경됐다. 낯선 존재인 타자에 대한 질문은 그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로 이어졌고, 인권(人權) 논의는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으로 확장됐다.

집단사육하는 가축과 구별하며,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 불린다. 반려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영가천도를 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축생법당'으로 알려진 천룡정사를 필두로 서울의 봉은사와 국제선센터, 강릉의 현덕사 등이다. 얼마전 심곡암에서는 동물은 물론 식물을 포함하여 '제1회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하였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 천도라니 실소말라
동물천도 의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웃지말라
그대가 자신을 만나는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물천도는 동물권과 관련지어 생태적 삶을 질문하며, 환경복지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처한 문제의 본질로 인도한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COVID 19' 등의 문제는 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해 동물과 인류 종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이루어진 질병들이다. 즉 동물들에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은 그 일차적 원인을 동물에게 귀책시킴으로써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 살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일전해 본다면, 근본 책임은 환경을 망치고 생태를 위협하여 기후위기를 부른 우리들에게 있다. 무문은 벽력같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현대인들에게 한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여우의 몸을 받아야 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는데 왜 여우의 몸을 벗어났는가?
(不落因果 爲甚墮野狐 不昧因果 爲甚脫野狐)

절집에 동물위패를 모신 영단이 있다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동물천도라니 하며 실소하지 말 일이다. 동물천도 의례가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전 여러 생을 거쳐온 그대가 시방 자신을 만나는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심의 발현이며, 생태적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불교, '리멤버 4·16!'

2014년 4월 16일. 이날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세월호 총 탑승객 476명 중 304명(미수습자 포함)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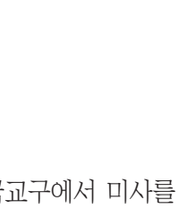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던 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회 부조리의 끝판왕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일반인에게 돌아갔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공업(共業)이며,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

10년 전 4월 16일, 당시 불교계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고, 그해 연등회의 연등행렬은 화려한 장엄등과 행렬등 대신 하얀 만장과 연등이 채웠다. 당시 하얀 연등의 물결은 희생자에 대한 극락왕생 발원과 통렬한 참회가 담겨있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불교계가 들었던 하얀 연등과 만장은 빛이 바랜 것 같다. 개신교, 가톨릭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기 위한 미사와 예배 등의 추모행사를 전국에서 열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 추모기간을 정해 전국교구에서 미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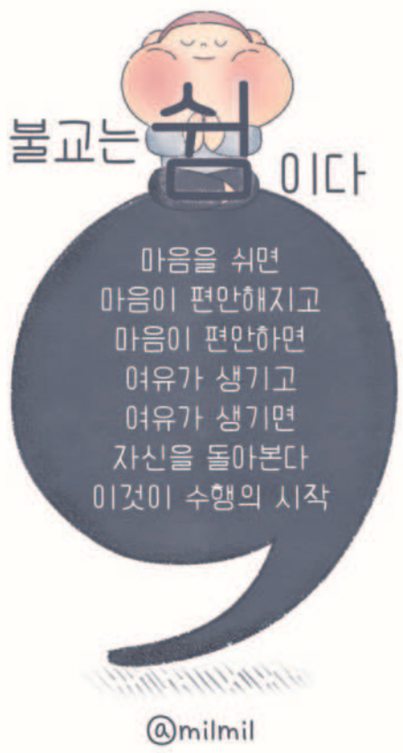
반면 불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13일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해상법회를 봉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추모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애도메시지가 나온다는 소식도 확인된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래진 기억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지속되는 아픔이다. 불교계에 요란한 추도의식을 열자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억해 나가자는 것이다. 불교의 자비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의 불교는 그들의 아픔을 듣고 있느냐고. 들을 준비는 돼 있냐고. 'Remember 4·16'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우리의 불교는 행복하다

현불논단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해마다 봄꽃과 함께 펼쳐지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는 특히 큰 인기를 모았다. 소위 MZ세대들의 공간인 'X'에서 X하고 Hip한 불교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봄을 즐기듯 불교를 즐겼다. 불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이 참으로 싱그럽고 새로운 모습의 태동처럼 느껴져 행복함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불교는 언제나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나 출가라는 고정관념과 산사에서 지내는 모습으로 인해 사회와 동떨어진 출세간의 모습이 그동안 불교를 올드하고 정체된 종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2600년 전 부처님께서도 단 한순간도 사회와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고, 깨달음을 얻으신 이래로 45년간 항상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여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법을 설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올해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온 환지본처로서의 불교로 나타난 것이다.

중생이 있는 모든 곳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곳에 불법이 있다는 가르침과 같이 가상의 공간인 'X(트위터)'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불교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서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행자가 하는 모든 행은 그 자체로 수행이라는 말처럼, 박람회에서 EDM 파티로 법석을 열고 그 속에서

중생이 있는 곳에 항상 부처님 계시니
X 같은 가상공간도 부처님 법계 존재
우리의 불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다

세대와 출재가를 넘어 모두가 관세음보살과 극락왕생을 외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다양한 굿즈들도 사람들에게 불교를 보다 가깝고 즐거운 종교로 다가서게 해주었다. 한문 경전과 어려운 말이 아닌 인형과 캐릭터, 티셔츠 등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불교를 고민없이 받아들이게 해주었고, 이 시대의 다양한 트렌드가 불교 안에 멋지게 펼쳐져 있는 것을 체험하고 함께하게 해주었다.

빠른 변화의 시대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불교의 멋이 사람들에게 이제라도 알려져 참으로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많은 세대로 전달된 불교는 그저 즐기는 것만이 아닌 그를 통해 자신을 살피고 수행으로 나아가는 선지식의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 놀고 즐기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망함과 일상으로의 복귀에서 그 시간 동안 즐기며 얻어진 것들이 단순한 재미가 아닌 행복함으로 남아 삶의 토대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 보다 쉽게 이해되고 친숙하며 즐길 수 있는 불교의 교리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제시된 'X'의 법계에서 어떻게 이 현상을 이어가고 그들과 공존할지 불교의 모든 이들이 고민하고 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이 시대의 불교가 무엇인지 이번 국제불교박람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막연한 깨달음과 진지한 고행이 아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미소 가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야단법석을 열고, 큰 소리로 불보살의 명호를 외치며 즐길 수 있는 불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불교이다. 불교를 통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교가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참다운 깨달음일지도 모르겠다.

절 달력에 환경지침 담아보면 어떨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모진질병 돌적에는 약풀되어 치료하고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되어 구제하되
여러중생 이익한일 한가진들 빼오리까."

이 발원문을 처음 들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아이들 방학 기간이어서 아침 시간에 여유가 생긴 나는 새벽 예불에 참석할 수 있었다. 순전히 궁금증에서 참석한 첫 새벽예불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선사했다. 스님 한 분이 종이를 펼쳐 들고 읽어내려가는 한 구절 한 구절에 빨려들 듯 듣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눈이 뜨거워졌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산혜원선사 발원문'이었다.

그때까지 절에 가면 불상 앞에 절을 하며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온통 빌기만 했는데 이 발원문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모진 질병이 돌적엔 스스로 약풀이 되어 치료하겠다는 서원, 흉년 드는 세상에 쌀이 되어 구제하겠다며 그것도 모자라 여러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이라면 한 가지라도 놓칠 수 없다는 이 발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공고하게 쳐놓은 '나'라는 테두리를 해체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관심사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준 발원문이었다.

이런 고무적인 경험 이후 연구소를 차려 불교계에 이런저런 제안을 했었다. 그 무엇보다 바꾸고 싶었던 것은 절 달력이었다. 달마다 돌아오는

이안선사 발원문에 가슴이 뜨거워져
재일에 할 수 있는 환경지침 제안해
이루지는 못했지만, 항상 발원해본다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이 있다. 달마다 초하루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름에는 한 시간이라도 전등을 끄고 환한 달빛을 켜보자는 제안, 지장재일에는 육식 대신 채식을, 관음재일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런 내용이 절 달력에 적힌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이후 이런 마음을 담아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대파 한 단 값이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물가 폭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물가가 높은 데에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해 여름 이상기후로 작황이 무척 나빴다. 코로나라는 모진 질병을 겪으며 약풀이 되겠다던 이산 선사의 발원이 떠올랐다. 흉년 드는 세상에 쌀이 되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환경이 망가진다면 어떻게 쌀이 될 수 있을까?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2020년 지구의 날에 달라이라마 스님은 "종종 달과 별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누구라도 그곳에 살게 된다면 불행할 것"이라며 "우리 행성은 살기에 매우 안온한 곳이고, 지구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지구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며 해양산성화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법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나 자각하며 살고 있을까? 이산 혜연선사 발원문을 다시 꺼내 읽으며 우리 공동의 집 지구에서 대대손손 안온하게 살 방법을 생각해본다. 날짜마다 간절한 발원과 실천이 담긴 절 달력을 만들어 함께 행동에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社 說

MZ세대 눈높이 맞춘 연등회 기대

'불교, 또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것 하네.' 지난해 열린 연등회 연등놀이에서 진행된 개그맨 윤성호 씨의 EDM 파티를 두고 한 말이다. 엄숙하고 조용할 것 같은 불교행사에 EDM 공연을 하며 '부처핸썸'을 외치는 모습이 일반인들에게는 즐겁게 다가온 것 같다.

이런 낯설음이 주는 매력은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제대로 발휘됐다. SNS 입소문 타고 행사장은 MZ세대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3배 이상 입장객이 늘었다고 한다. 윤성호 씨가 분한 '뉴진 스님'의 EDM파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아이돌 그룹 하이키의 담마토크, AI붓다 등 이색적인 프로그램들과 '자빠진 쥐' 등 독특한 굿즈들은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이 같은 불교문화 열풍을 연등회가 이어나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연등회의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동국대는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재학생 2000명을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군종특별교구는 군승들과 군종병들이 호국의 의지를 담아 등을 들고 참여할 예정이다. 전통문화마당에는 청년MZ마당이 열린다. 이를 위해 주최 측은 불교박람회 인기프로그램을 섭외 중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법을 시대와 대상의 눈높이에 맞게 전하셨다.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법을 전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MZ세대에 맞는 '재밌는 연등회'를 기대한다.

제22대 국회, 정신건강 정책에 힘쓰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0 총선이 끝났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제21대에 이어 '여소야대' 형국을 이어가게 됐다.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불자 의원들은 36명이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정각회가 구성돼야 정확한 인원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기존 정각회원들과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을 종합했을 때 36명 안팎으로 불자의원들이 국회 입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전이 눈에 띄었다. 정각회 여야의원 48명 30명이 공천을 받아 출마했고, 이중에 24명이 당선됐다. 공천 이후 당선율를 보면 77%에 이른다.

그래서 제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불자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불교계와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하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일꾼들이다. 그렇기에 거는 기대도 크다. 총선 당시 조계종은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특히 자료집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에 대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현재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명상체험 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명상의 대중화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선명상 보급은 다만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다. 불교계의 국민 정신건강 정책에 제22대 국회가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